

연구보고24-일반05-01

#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김기현 · 오병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 2024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성인기 이행

---

저 자 김기현, 오병돈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오병돈(뉴욕주립공과대학·조교수)  
연구보조원\_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로와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기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성인기 이행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성인기 이행이 이전보다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이행기(첫 취업, 첫 분가, 첫 결혼) 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기 순서와 관련하여 근대 이후 분가-취업-결혼으로 이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20대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IMF 외환위기 이후 분가 시기도 늦어져 취업-분가-결혼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취업과 진학 선택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라는 응답비율은 2007년 35.0%에서 2015년 36.4%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3년 26.7%에 그쳤다. 교육기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사표시는 2007년 59.4%에서 2015년 47.6%로 감소했으나 2023년 72.3%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대학원 진학이나 고졸 취업 의사는 줄어들었다.

3개 코호트별로 분석한 취업과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은 취업이나 진학 미선택에 대한 부(-)의 효과가 있었고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서 미결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고교계열은 직업계고를 기준범주로 했을 때 일관되게 취업과 진학 미결정에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가정배경의 영향 중에서 가구소득만이 유의했고 10%의 유의수준에서 미결정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KCYPs 2010 중학교 1학년 학생을 14년간 추적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대표적인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성인기 이행의 패턴은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포함하여 취업, 교육, 분가 등에 있어서 4가지(군 복무 후 취업형, 군복무 후 교육형, 휴복학형, 교육 우선형) 유형으로 나누어졌고 여성의 경우도 4가지(조기 취업형, 단계적 이행형, 분가 지연형, 교육 연장형)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성인기 이행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우선하는 초기 성인기 패턴(남성의 군복무 후 취업형과 여성의 조기 취업형)보다는 교육을 중시하는 패턴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컸다.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은 자녀의 교육성과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과 가족배경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of gender and class) 역시 발견되었는데 부모의 계급이 높은 여성 청년에게 분가 지연은 부유한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경제적 지원의 확장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부모의 계급이 낮은 여성 청년에게 분가 지연은 경제적 능력이 분가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하거나 가난한 부모를 초기 성인기부터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일 가능성이 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년, 성인기 이행, 학교 졸업, 취업, 분가, 결혼**

## 연구요약

### 1. 서론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로와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기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 이 연구에서는 먼저 2차 분석으로 국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인기 이행 실태를 분석하였음. 최근 발표된 OECD의 사회통계보고서(*Society at a Glance*)와 교육통계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등을 활용해 국제비교 분석도 시도하였음.
- 이어서 2003년부터 패널조사로 이루어진 청소년패널조사(KYPS) 및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3가지 코호트(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간 비교분석을 통해서 성인기 이행 이전에 고교 시기 취업과 진학 선택 과정을 살펴보았음.
- 마지막으로 KCYPS2010 패널조사와 2023년까지 진행된 유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성인기 이행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음.

### 2.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먼저 학교 이행 결과를 보면, 대학 진학률은 2023년 현재 72.8%로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교 계열별 진학률을 보면, 완성교육으로 취업이 목적인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2023년 기준으로 50%를 넘어섰음. 학교에 장기적으로 다니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학 휴학 비율은 1980년 10.6%에서 2022년 24.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 추이를 보면, 2007년 대학 졸업생 중 5.2%가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2022년 4.5%로 낮아졌음.
- 학교-일자리 이행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중 특성화고(전 전문계고, 실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1999년 148,478명에서 2023년 15,388명으로 급감하였음. 이어서 첫 취업연령은 취업자의 비중이 해당 연령에서 처음으로 50% 이상을 보여주는 연령으로 추정하였음. 첫 취업연령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 첫 취업연령이

21세였고 여성은 20세, 남성은 22세로 나타났으나 2023년 24세로 늘었고 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로 증가하였음. 학교 졸업 및 중퇴 후에 첫 취업소요 기간은 2023년 첫 조사(2004년) 후 처음으로 12개월로 늘었고 3개월 미만 조기 취업 비율은 2004년 56.3%에서 2024년 47.7%로 낮아졌음.

- 마지막으로 분가 및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가구주가 해당 연령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첫 분가 연령을 살펴보았음. 결과를 보면, 1990년 전체는 33세, 남성의 경우 26세로 나타났음. 여성은 사별이나 이혼 이후에 가구주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별도의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음. 2023년 결과를 보면, 전체는 38세, 남성의 경우 31세로 첫 분가 연령이 높아졌음. 20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81.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음. 초혼 연령은 1990년 남편은 27.8세, 아내는 24.8세였는데 2023년 현재 초혼 연령은 남편은 34.0세, 아내는 31.5세로 늘어났음.
- 3가지 이행기(첫 취업, 첫 분가, 첫 결혼) 간의 연령 차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첫 분가와 첫 결혼 간의 연령이 가장 가까웠고 1990년 이후 1-2세의 차이를 보여주다가 2022년부터 3세 차이로 조금 벌어졌음. 두 번째 이행기 간에 연령 차이가 길었던 것은 첫 취업과 첫 분가 간으로 1990년 4세 차이에서 2015년 이후 최대 7세 차이가 났다가 2023년 들어 6세 차이로 다소 좁혀졌음. 마지막으로 가장 거리가 멀었던 이행기는 첫 취업과 첫 혼인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5세나 6세에서 9세로 늘어났음.

### 3. 고3의 취업과 진학선택 코호트비교

- KYPs 2003과 KCYPs 2010, 그리고 KCYPs 2018의 중학생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향후 취업과 진학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들의 선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음.
- 2007년과 2015년, 그리고 2023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취업을 위한 직업선택을 물어본 결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라는 응답비율은 2007년 35.0%에서 2015년 36.4%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3년 26.7%에 그쳤음. 교육기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학미결정 상태에 있는 경우는 2007년 0.4%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1%로 증가했고 2023년 9.2%로 2007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사표시는 2007년 59.4%에서 2015년 47.6%로 감소했으나 2023년 72.3%로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대학원 진학이나 고졸 취업 의사는 줄어들었음.

- 이어서 3개 코호트별로 분석한 취업과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은 취업이나 진학 미선택에 대한 부(-)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성별은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서 미결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높게 추정되었음. 고교계열은 직업계고를 기준 범주로 했을 때 학업성적과 더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관되게 미결정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가정배경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가구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음. 가구소득은 10%의 유의수준을 포함하여 취업과 진학 미결정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4. 성인이 이행 영향요인 분석

- 여기에서는 KCYPS 2010 중1 학생을 14년간 추적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대표적인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였음.
- 군복무 여부와 시기에 따라 남성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패턴은 크게 4가지(군복무 후 취업형, 군복무 후 교육형, 휴복학형, 교육 우선형)였음. 여성 청년의 분가 시기는 남성에 비해 늦은 편임. 분가는 교육과 더불어 여성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패턴을 나누는 기준이며 이 역시 4가지(조기 취업형, 단계적 이행형, 분가 지연형, 교육 연장형)로 구분하였음.
- 성인기 이행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우선하는 초기 성인기 패턴(남성의 군복무 후 취업형과 여성의 조기 취업형)보다는 교육을 중시하는 패턴을 이행할 가능성이 컸음.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은 자녀의 교육성과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고등학교 유형과 성적의 통계적 유의미도는 가족배경 요인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음.

- 분가 시기와 관련된 성별과 가족배경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of gender and class)이 발견되었는데 부모의 계급이 높은 여성 청년에게 분가 지연은 부유한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경제적 지원의 확장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부모의 계급이 낮은 여성 청년에게 분가 지연은 경제적 능력이 분가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하거나 가난한 부모를 초기 성인기부터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의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음.

## 5. 정책 제언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우선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전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이행 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 대학 진학 단계에서 고학력화가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음. 그런데 고학력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대졸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었고 고졸 기능 인력의 부족과 대졸 인력의 과잉 상태가 지속되면서 성인기 이행 지연 문제로 이어짐. 고졸 단계에서 취업과 대학 진학, 그리고 향후 대학원 진학과 같이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중요해짐.
  - 직업계고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직업계고가 충분히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나 일반고 직업반에 비해서 취업률이 높고 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어서 대학 휴학 및 졸업유예와 졸업 후 취업 기간의 장기화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와 독일, 일본의 조기 개입을 통한 문제 최소화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졸업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평균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3개월 이내에 조기 취업 비율도

갈수록 낮아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 등을 통해 학교-일자리 정보 연계를 실현하고 졸업 전이나 졸업 직후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 개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졸업하고 6개월 이 지난 대상을 지원하기보다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조기 개입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석사와 학사 학위 과정인 대학원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외 대학원 진학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고급 인재양성에 대한 특단의 접근이 필요함.

### ● 고3의 취업과 진학 선택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자아존중감은 취업이나 진학 미선택에 대한 부(-)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고교계열에 따른 결과와 관련하여 직업계고에서 대학 미진학 가능성이 높게 추정된 것과는 달리 직업미결정 역시 높게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임. 직업계고는 완성교육기관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과 운영이 경직적이고 직업계고에서 일반계고로의 전환은 물론 전공 간의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동시에 직업계고 내에서도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직업교육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에서, 진로교육은 책임교육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상호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 성인기 이행 영향요인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성인기 이행 패턴에서 군복무 후 취업형 남성과 조기 취업형 여성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임. 이 두 유형에 속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성적이 높은 청년 남성과 여성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군복무 후 취업형과 조기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초등과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은 초기 성인기 이행의 차이를 줄이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

- 저소득 가구 출신 청년 남성과 여성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대학교 교육 및 성인기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군복무 후 취업형 남성과 조기 취업형 여성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여성의 분가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이 필요함. 군복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분가 시기는 남성보다 늦은 편임. 조기 취업형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으며, 취업 확률이 증가하여도 분가 확률이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았음. 분가 지연형 여성은 가구소득이 다른 여성에 비해 낮지 않지만, 취업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분가 확률이 오히려 감소하였음. 향후 여성의 분가 지연을 야기하는 요인과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함.

● 성인기 이행 조사에 대한 시사점

- 성인기 이행 조사와 관련하여 27세 이후 KCYPS 2010의 중1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가 필요함.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20대 후반까지 추적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임.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KCYPS 2010 중1패널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패널조사를 수행하는 신규 과제(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를 발굴하여 제안하였음.
- 2025년 본조사 문항 개발에 앞서 2024년 12월에 실시되는 KCYPS 2010의 중1패널에 대한 유지조사는 간략하게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이행 시점을 식별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음.

2024 한국 아동·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성인기 이행

연구보고24-일반05-0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성인기 이행 분석 내용 및 방법 ..... 5

II.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1. 성인기 역할 이행 ..... 9

2. 연구 방법 ..... 11

3. 우리나라 성인기 이행 실태 분석 ..... 12

III. 취업과 진학 선택 코호트비교

1. 이론적 배경 ..... 35

2. 연구 방법 ..... 37

3. 분석 결과 ..... 38

IV. 성인기 이행 영향 요인 분석

1. 이론적 배경 ..... 51

|                |    |
|----------------|----|
| 2. 연구 방법 ..... | 54 |
| 3. 연구 결과 ..... | 56 |

## V. 요약 및 시사점

|                      |    |
|----------------------|----|
| 1. 결과 요약 .....       | 75 |
| 2.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 81 |

|            |    |
|------------|----|
| 참고문헌 ..... | 91 |
|------------|----|

|          |    |
|----------|----|
| 부록 ..... | 99 |
|----------|----|

## 표 목차

|                                                                          |    |
|--------------------------------------------------------------------------|----|
| 표 Ⅲ-1. KYPS 2003 자아존중감 신뢰도 분석 결과 .....                                   | 42 |
| 표 Ⅲ-2. KCYS 2003 고3학생의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br>분석(multi-nominal logit) .....  | 42 |
| 표 Ⅲ-3. KCYPS 2010 자아존중감 신뢰도 분석 결과 .....                                  | 44 |
| 표 Ⅲ-4. KCYPS 2010 고3학생의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br>분석(multi-nominal logit) ..... | 45 |
| 표 Ⅲ-5. KCYPS 2018 자아존중감 신뢰도 분석 결과 .....                                  | 46 |
| 표 Ⅲ-6. KCYPS 2018 고3학생의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br>분석(multi-nominal logit) ..... | 47 |
| 표 IV-1. 반복 측정 변수를 활용한 잠재 계급 분석 모형 적합도 .....                              | 59 |
| 표 IV-2. 독립변인 기술통계 .....                                                  | 64 |
| 표 IV-3.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잠재계급 소속 확률 ..                                | 65 |
| 표 IV-4. 가족배경 및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잠재계급 소속<br>확률의 상대적 승산비(남성) .....            | 67 |
| 표 IV-5. 가족배경 및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잠재계급 소속<br>확률의 상대적 승산비(여성) .....            | 68 |
| 표 V-1. 3개 코호트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 분석 결과 .....                                | 78 |

## 그림 목차

|                                                           |    |
|-----------------------------------------------------------|----|
| 그림 I-1.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모래시계 모형                            | 4  |
| 그림 II-1.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 추이(1965-2023년)                    | 13 |
| 그림 II-2. 25-34세의 최종 교육수준 국제비교(2022년)                      | 14 |
| 그림 II-3. 고교 계열별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 추이(2011-2023년)             | 15 |
| 그림 II-4. 수능능력시험 졸업생 응시자 수 및 지원자 중 비중<br>(1994-2024년)      | 16 |
| 그림 II-5. 대학(전문대 포함) 휴학률 추이(1980-2022년)                    | 17 |
| 그림 II-6. 청년 졸업자 중 휴학 경험 비율과 기간 추이(2007-2024년)             | 18 |
| 그림 II-7. 국내/국외 대학원 진학자 수 및 진학률 추이(2007-2022년)             | 19 |
| 그림 II-8. 25-34세의 대학원 학위자 비율 국제비교(2022년)                   | 20 |
| 그림 II-9.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 및 취업자<br>비중(1999-2023)    | 22 |
| 그림 II-10. 직업계고 유형별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 비교(2023)                   | 23 |
| 그림 II-11. 고등교육 졸업자 중 취업자 수 및 취업자<br>비중(2010-2022)         | 24 |
| 그림 II-12. 첫 취업 연령 추이(1990-2023년)                          | 25 |
| 그림 II-13. 청년의 졸업·중퇴 후 첫 취업 기간 및 조기취업 비율<br>추이(2004-2024년) | 25 |
| 그림 II-14. 청년 중 공시생 규모 및 비율 추이(2006-2024년)                 | 26 |
| 그림 II-15. 첫 분가 연령 추이(1990-2023년)                          | 28 |
| 그림 II-16. 청년(20-29세)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br>국제비교(2006/2022년)    | 28 |
| 그림 II-17. 초혼연령 추이(1986-2023)                              | 29 |
| 그림 II-18. 초혼연령 국제비교(2021년)                                | 30 |
| 그림 II-19. 모의 연령(19-34세)별 출산율 추이(1993-2023)                | 30 |
| 그림 III-1. 코호트별 고3 시기 취업 선택 여부 응답<br>비교(2007/2015/2023)    | 39 |

그림 Ⅲ-2. 코호트별 고3 시기 교육기대 응답 비교(2007/2017/2023) · 40

그림 IV-1.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 취업, 분가, 군복무 여부의  
시간적 변화 ..... 58

그림 IV-2. 잠재계급 문항 응답 확률 ..... 61

그림 V-1. 남성의 생애 첫 연령 간 차이 변화(1990-2023) ..... 77

그림 V-2. 직업교육 혁신지구 ..... 83

그림 V-3.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 84

그림 V-4.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 86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성인기 이행 분석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은 국가정책으로 다루어지지 않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고용위기가 시작되면서 주요 정책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년의무고용제, 청년고용장려금,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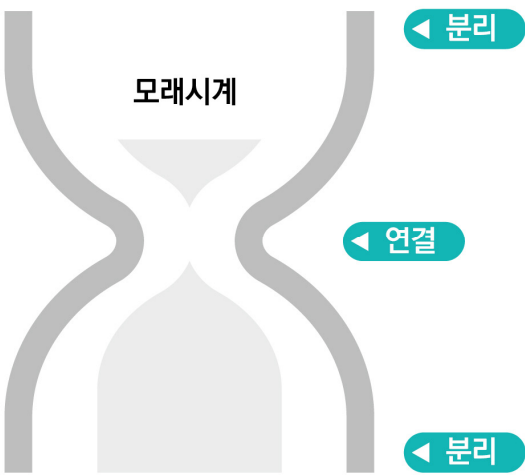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물론 삶 전반으로 청년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책의 초점이 청년 삶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편에서 지난 20여 년간 아동·청소년에서 청년을 거쳐 성인으로 넘어가는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특히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고 고학력에 따른 취업경쟁 강화로 대졸자의 취업 과정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성인기 이행 과정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몇 가지 특징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성인기 이행이 이전보다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Kartrin, 2017). 우리나라 역시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시계열 자료가 제공 중인 초혼연령을 보면, 1990년 남편은 27.79세, 아내는 24.78세였는데 2023년 남편은 33.97세, 아내는 31.45세로 6세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4).

두 번째 변화는 성인기 이행의 주요 사건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 졸업과 취업 간에, 취업과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가족형성 간에 나타나고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있다. 전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휴학기간이 길어지고 졸업 후에도 바로 취업을 못하거나 고시생 및 공시생 등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생겨났다. 이와 관련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졸업 후 첫 취업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비율은 첫 조사가 이루어진 2004년에 54.4%였으나 2024년 47.7%로 낮아졌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4). 취업과 가족형성의 시점 간 차이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비혼의 등장과 초혼 연령의 확대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다.



\* 출처: Jones & Wallace(2007: 156). 김기현 외(2020: 16)에서 재인용

그림 1-1.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모래시계 모형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행기 전환점의 순서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근대 이후 성인기 이행과정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결혼에 이어 분가를 하고 한 가정을 꾸린 후 자녀를 출산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현재 이러한 전환점 간의 순서는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이루어지고 결혼을 한 후에 취업을 하거나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분가를 먼저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Jones & Wallace(2007)는 영국의 전근대사회로부터 산업혁명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 주요 이행 사건 간의 거리가 좁혀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래시계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성인기 이행 경로와 패턴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주목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정책 대상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청년 연령정의를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에 청년 연령 규정을 34세까지 하고 있으며 서울 도봉구를 포함하여 48개의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에서 상한연령을 40대를 포함하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2차 분석으로 국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인기 이행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OECD의 사회통계보고서(*Society at a Glance*)와 교육통계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등을 활용해 국제비교 분석도 시도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 패널조사로 이루어진 청소년패널조사(KYPS) 및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3가지 코호트(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간 비교분석을 통해서 성인기 이행 이전에 고교 시기 취업과 진학 선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KCYPS2010 패널조사와 2023년까지 진행된 유지조사까지 성인기 이행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성인기 이행 분석 내용 및 방법\*

KCYPS는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에 따라 스페셜 모듈 문항을 설정하여 조사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데이터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데이터분석보고서’는 분석 결과 제시와 더불어 정책적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종의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인 2023년 데이터분석보고서의 경우, 진로준비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2024년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패널조사를 이용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차 분석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인구동향조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기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간 코호트별로 이행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코호트 비교 분석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진학과

---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취업에 대한 향후 진로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진로계획을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CYPS 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진행된 유지조사는 성인이 이행이 진행된 데이터로 조사 문항이 간략하다는 제한이 있으나 본 조사의 자료와 병합(merge)에 학교 졸업 후 성인이 이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KCYPS 2010 중1패널에 대한 유지조사는 고교 졸업까지 본조사가 이루어진 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이어져 총 14년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성인이행기의 사건인 학교 졸업, 첫 취업, 분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행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대신 이행 여부에 대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model)과 이를 토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청소년 및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가지 분석은 성인이 이행 실태 전반에 대한 파악과 함께 다른 세 가지 코호트 비교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 이행기 변화와 변화를 가져온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유지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수행하였으며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인이 이행 실태에 대한 분석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10월 21일(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발표자 김기현)에서 ‘청년 사회 진출 지연 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성인이 이행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내용은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한국연구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에서 10월 18일과 19일 개최한 한국사회학에 대한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ology of Korea)에서 ‘초기 성인의 다양한 경로: 한국의 20대 남녀의 교육, 고용, 그리고 독립에 대한 종단잠재계층 분석(*Diverging Pathways in Early Adulthood: A 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of Education, Employment, and Independence Among Korean Men and Women in Their 20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발표자 오병돈)가 이루어졌다.

## ○ — 제2장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1. 성인기 역할 이행
- 2. 연구 방법
- 3. 분석 결과



## 1. 성인이 역할 이행\*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법적 성인 연령에 도달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들은 만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복잡다단한 양상의 성인이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Settersten(2007)은 성인이 이행 과정의 5가지 주요한 사회적 역할 이행(최종 학교 졸업, 취업, 분가, 결혼, 출산)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인이 이행의 과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역할의 이행 여부와 시기는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Buchmann & Kriesi, 2011; Hogan & Astone, 1986; Juárez & Gayet,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험하는 성인이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청년들의 각 성인이 역할의 이행 여부와 시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성인이 이행 패턴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패턴의 성인이 이행 과정을 경험하는 청년 집단들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성별, 가족배경, 고등학교 교육성과)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Settersten(2007)이 제시한 성인이 이행의 5가지 핵심 역할 이행 중, 3가지 역할 이행(최종 학교 졸업, 취업, 분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가지 역할 이행(최종 학교 졸업, 취업, 분가)의 여부와 완료 시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Hogan & Astone, 1986; 김기현 외, 2021). 교육 기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 이 장은 오병돈 조교수(뉴욕주립공과대학)이 작성하였음.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시간제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이다(Staff & Mortimer, 2008).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최종 학교 졸업과 취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Nilsson, 2017; Ryan, 2001).

최종학교 졸업과 취업은 분가의 가능성과도 맞물려있다. 일부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기존에 살던 곳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개별 가구를 구성한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이 수반되지 않는 분가는 실질적인 자립이라고 보기 어렵다(유민상 외, 2022). 경제적인 독립이 수반되는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은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홀로 서기가 늦어지는 것이어서 생애소득을 비롯하여 불이익이 가져다 준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경제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애과정의 탈표준화와 다양화로 인해 성인기 이행의 패턴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최종 학교 졸업, 취업, 분가는 여전히 성인기 이행을 특징짓는 중요한 세 가지 역할 이행이다(남춘호, 남궁명희, 2012; 이상직, 2022; Arnett, 2000). 우리나라 청년들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첫 전일제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성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김기현 외, 2021).

둘째,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김기현 외, 2021; Hogan & Astone, 1986). 결혼과 출산은 전통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생애의 주요한 전환 사건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었다(김기현 외, 2021; Gilmore 1990). Jones & Wallace(1992)의 모래시계 모형 가설에 따르면, 최종학교 졸업·취업·분가 시기와 결혼·출산 시기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줄어들었으나 현대사회에 오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출산 시기도 지연되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Arnett(2002)은 새롭게 등장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의 독특한 초기 성인기 이행 단계를 지칭하기 위해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성인기 이행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는 청년 지원 정책이 최종 학교 졸업, 취업, 분가, 결혼 출산에 이르는 5가지 광범위한 역할 이행보다는 ‘자립’ 또는 ‘홀로서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2.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대상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통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 청년층 부가조사,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기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성인기 이행은 학교 이행과 학교-일자리 이행, 그리고 분가와 가족형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성인기 이행 중 학교 이행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학교 이행 과정에서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 고교 계열별 대학 진학률, 대학 휴학비율, 대학원 진학자 규모 및 진학률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해 고교 졸업 후에도 수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 규모와 수험생 중 비율 추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일자리 이행은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 취업비중,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자 취업비중 및 유지취업률, 첫 취업 연령,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기간, 공시생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가와 가족형성은 첫 분가 연령, 첫 혼인 연령,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에 대해서 2차-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본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첫 일자리는 장기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OECD(2008)에서 추정하는 방식으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추정하는 방식은 청년 시기에 처음으로 50% 이상이 취업을 한 연령을 첫 취업 연령으로 보는 것이다(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이에 대한 분석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며 1986년부터 2022년까지의 원자료를 분석해 추정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의 기준은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일시적으로 휴직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취업자 비율이 청년 시기에 가장 먼저 50%에 도달한 연령으로 첫 일자리를 추정하였다.

분가와 가족형성 중에서도 첫 분가 연령은 장기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첫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OECD(2008)의 첫 일자리 연령 추정방식(50% 이상)으로 적용해 첫 분가 연령을 추정하고자 한다. 첫 분가 연령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 시기에 가구주 연령이 처음으로 50% 이상인 연령으로 추정하였다.

### 3. 우리나라 성인기 이행 실태 분석\*

여기에서는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앞서서 2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기 이행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행 과정을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과 학교-일자리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그리고 분가와 가족 형성(independence and family formation)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학교 이행

학교 이행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고학력화와 관련된 대학 진학률이다. 고등교육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끈 밑바탕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였다. 그런데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너무 많은 대학이 설립되었고 과도하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졸 노동시장과의 불일치(mismatch)가 나타났으며 이는 만성적인 청년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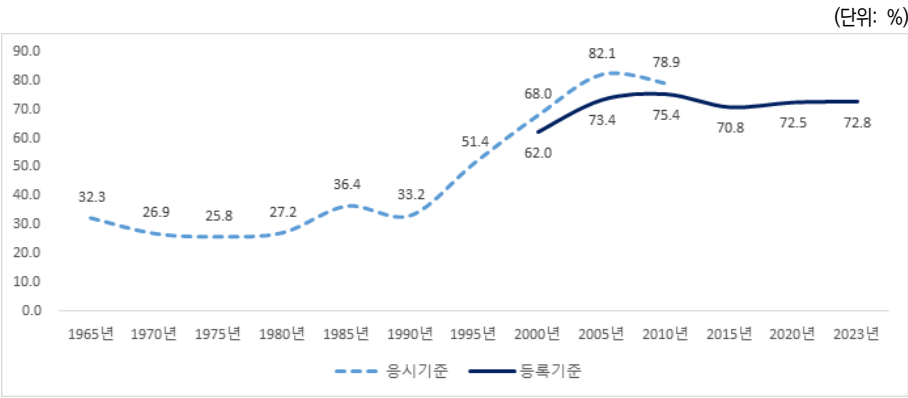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진학률 추이를 보면, 1965년 32.3%에서 1970년 26.9%로 낮아졌고 1980년까지 20% 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1985년 대학 진학률은 36.4%까지 올랐는데 이는 1981년 엄격한 학사관리로 정원보다 많이 뽑는 졸업정원제의 시행이 진학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졸업정원제 폐지로 대학 진학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1996년 대학 설립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이 크게 증가해 대학 진학률이 5년 사이 20%p 가까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학 진학률은 2005년 최고 수치를 보여주어 82.1%까지 상승하였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부터 기존 대학 진학률 통계를 중복 집계 문제가 있는 응시 기준 대신 실제 대학에 입학 등록을 한 기준으로 통계 정리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2010년 75.4%

---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로 정점을 보여주었고 이후 낮아지지 않고 70% 초반대를 지속적 유지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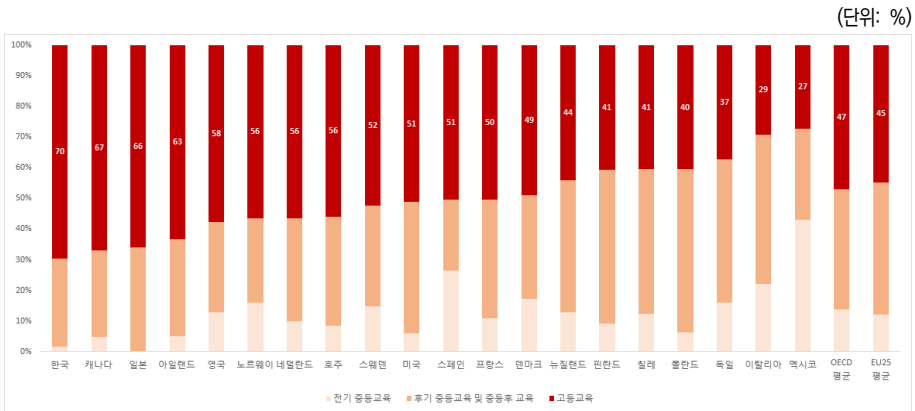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주) 2000년 이전까지 대학에 응시한 기준으로 집계되었고 2000년 이후 실제 대학에 등록한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까지 시계열 유지로 병행해서 집계가 이루어짐.

그림 II-1.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 추이(1965-2023년)

우리나라의 고학력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OECD(2023)는 교육통계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에서 25-34세를 대상으로 최종 교육수준의 분포를 국가별로 제시해 오고 있다.

2022년이 가장 최근 자료로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5-34세 중에서 최종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인 경우가 69.6%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47.2%로 우리나라는 무려 22.4%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67.0%, 65.7%로 60% 후반대를 보여주었고 미국은 51.3%, 프랑스는 50.4%, 핀란드는 40.8%, 독일은 37.3%였다.



\* 출처: 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e13bef63-en>)(검색일: 2024.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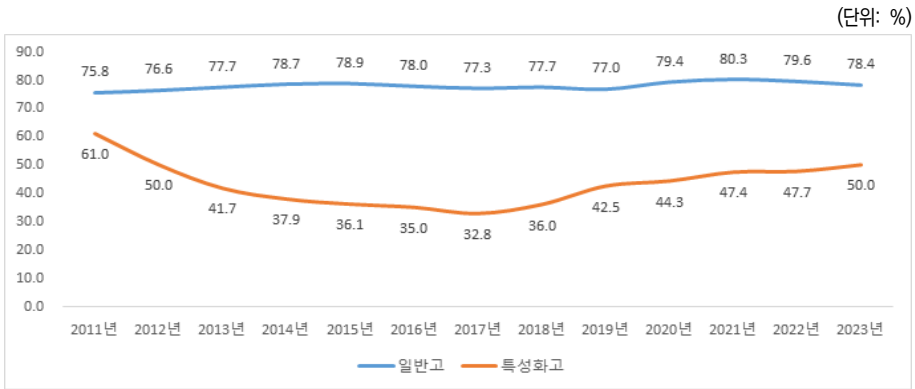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II -2. 25-34세의 최종 교육수준 국제비교(2022년)

이어서 고교 유형별로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계속교육기관인데 반해서 직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완성교육기관이다. 그렇다면 직업계 고졸자들은 진학이 아닌 취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로 불렸던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로 분류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을 모두 합쳐서 지칭하는 용어이다. 마이스터고나 일반고 직업반은 신설되거나 과거 직업 관련 고교 통계로 분류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은 보면, 2017년 32.8%로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23년 현재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은 50.0%를 보여주고 있다. 완성교육이라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30%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가 있는데 특성화고 졸업자의 절반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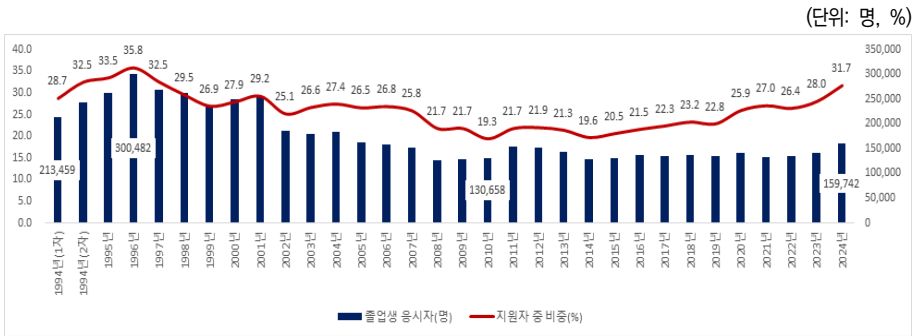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주)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추세임. 직업계고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중임.

### 그림 II-3. 고교 계열별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 추이(2011~2023년)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졸업 후에도 입시 준비를 하는 재수생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재수생 규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왔다. 여기에서는 수능시험이 처음으로 진행된 1994년부터 2024년 입학 시점까지 응시자 중 졸업생 규모와 전체 응시자 중 비중을 살펴보았다. 재수생 비중은 최소 19.0%에서 최대 35.0%까지 등락을 거듭해 왔는데 최근 추세는 과거 가장 재수생 비율이 높았던 1996년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재수생에게 유리한 정시 확대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024년의 경우 킬러 문항 배제 이슈가 불거져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로 재수생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2025년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재수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수생 규모는 2024년 159,742명으로 역대급 저출생 예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난 수치이다. 재수생 증가는 개인의 선택이고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나 성인이 이행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급속한 증가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4). 수능통계(<https://www.suneung.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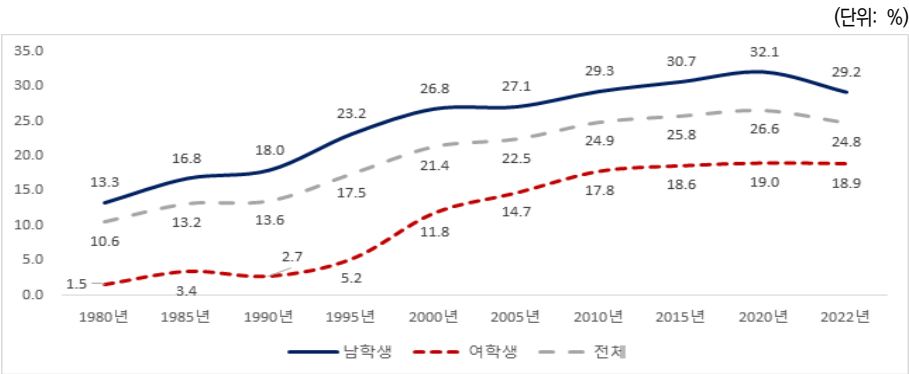
그림 II-4. 수능능력시험 졸업생 응시자 수 및 지원자 중 비중(1994-2024년)

성인이 이행 중 학교 이행에 있어서 지연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대학 휴학 문제가 있다. 최근 대학생들이 군 입대와 질병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취업을 이유로 휴학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장기간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휴학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인데 이 자료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조사 연도 2월 말까지 재적 학생 수 휴학을 한 학생의 비율로 휴학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학생의 휴학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로 15세에서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휴학경험 비율과 평균 휴학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가 1년 단위로 재학 중 휴학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 후자는 대학 재학 기간 중에 얼마나 휴학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교육통계연보의 결과를 살펴보면, 1980년 남학생 중 13.3%가 휴학을, 여학생 중 1.5%가 휴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차이는 군 입대 여부로 비롯된 것인데 여학생의 수치로 해석해 보면, 100명 중 2명 정도만이 휴학을 해 휴학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95년까지 이어지는데 여학생의 휴학률은 5.2%에 불과했다. 1997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대학교가 늘어나고 70%가 넘는 진학률로 고학력화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휴학률도 늘어났다. 2000년에 여학생의 휴학률은 5.2%에서 11.8%로 2배 이상 높아졌으며 2020년 19.0%까지 높아졌다. 남학생 역시 같은 기간

26.8%에서 32.1%까지 높아졌다. 집계 방식으로 인해 2022년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9.2%, 여학생은 18.9%로 소폭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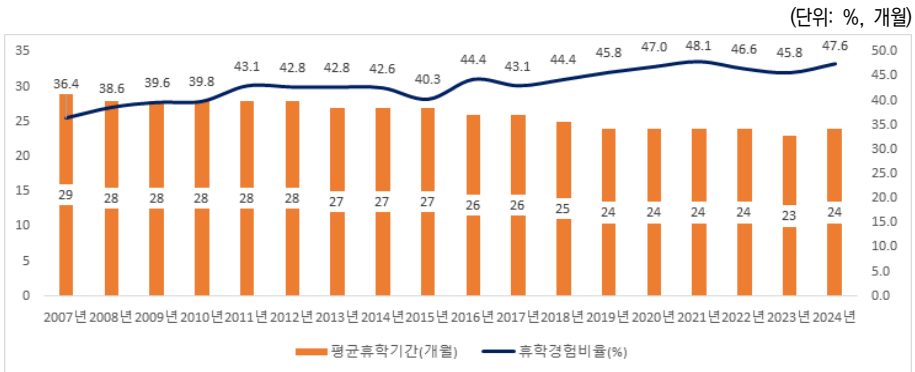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주) 휴학률 = (휴학생 수 / 전년도 재직학생 수) × 100. 전년도 3월 1일부터 조사 연도 2월 말까지로 교육통계연보의 4월 1일자 기준

그림 II-5. 대학(전문대 포함) 휴학을 추이(1980-2022년)

이어서 대학 재학 중 휴학기간과 비율을 살펴보면, 이 조사 항목이 처음 들어갔던 2007년 5월 대학 졸업자 중 평균휴학기간은 29개월이었다. 2007년 5월 당시 군복무 기간이 24개월이었는데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2011년 21개월로 3개월이 줄었고 2018년 18개월로 다시 3개월이 줄었다. 이를 반영해서 평균 휴학기간은 2007년 5월 29개월에서 2024년 5월 24개월로 6개월 낮아졌다. 군복무 단축을 고려하면 지난 20여 년간 휴학 기간 자체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학 경험 비율은 2007년 5월 36.4%에서 계속 늘어 2021년 5월 48.1%까지 상승했다. 이것은 대학 재학 중 휴학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가 겹쳐 2021년 휴학 경험비율이 정점을 보여준 후 엔데믹이 되면서 휴학 경험비율은 2022년 5월 46.6%, 2023년 5월 45.8%로 낮아졌다. 그런데 2024년 들어 다시 증가해 5월 기준으로 47.6%까지 상승했다.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4), KOSIS(<https://kosis.kr/>) 경제인구활동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주) 매년 5월 조사 기준이며 청년 연령은 15-29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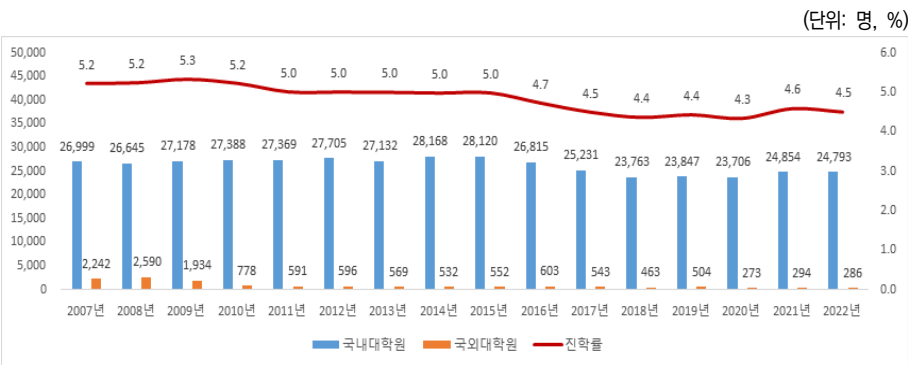
그림 II-6. 청년 졸업자 중 휴학 경험 비율과 기간 추이(2007-2024년)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국내 대학원 진학자 수는 26,999명이었고 국외는 2,242명이었다. 당시 전문대,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는 560,632명으로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를 합산해 진학률을 살펴보면, 5.2%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대학원 진학자는 계속 늘어 2014년 28,168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해 2022년 현재 24,793명에 머물고 있다. 대학원 진학률의 감소는 저출생이 우선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전체 졸업자 수는 2014년 577,234명에서 2022년 558,039명으로 줄었다.

또 다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의 경쟁력이 낮아진 측면도 존재한다. 석사와 박사과정을 통해 장기간 학업을 유지한 후 취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return to education)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내신규박사 학위취득자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신규 박사 취득자의 연봉은 2,000만원 미만인 14.2%, 5,000만원 이상이 48.3%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4). 2018년 결과를 보면, 각각 15.5%, 45.4%로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받는 신규 박사 취득자의 비중은 늘고 대기업 연봉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후 2,000만원 미만은 줄고 5,000만원 이상은 늘어났는데 2022년 각각 11.9%, 49.5%였다. 다만, 2-4%에 이르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특징은 국외 대학원 진학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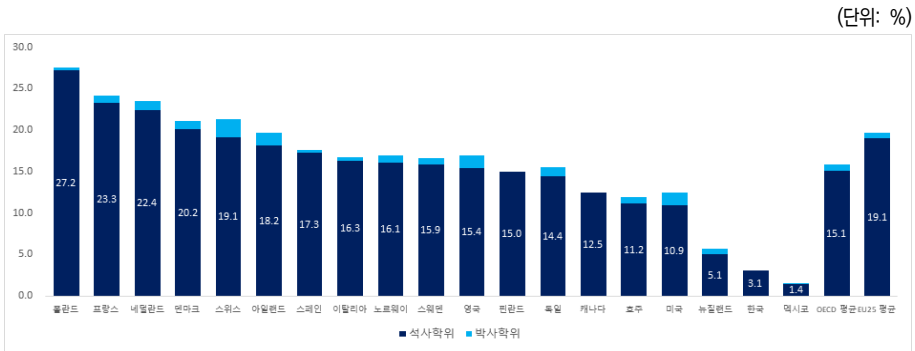
대학원 진학자 수는 2,242명이었는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큰 폭을 낮아져 2010년 778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이후 감소 경향은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 2022년 현재 국외대학원 진학자 수는 2007년의 10명 중 1명 수준인 286명에 그쳤다. 이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그림 II-7. 국내/국외 대학원 진학자 수 및 진학률 추이(2007~2022년)

우리나라의 대학원 진학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에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대학원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5-34세 중에서 최종 교육수준이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3.1%에 그쳤다. OECD 평균(15.1%)과 비교해 보면, 무려 12.0%p나 낮은 수준이며 유럽연합(EU) 25개 국가와 비교하면 16.0%p로 차이가 더 컸다.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폴란드가 27.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 프랑스가 23.3%였으며 네덜란드가 22.4%, 독일이 14.4%, 미국이 10.9%였다.



\* 출처: OECD(2023).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e13bef63-en>)(검색일: 2024.09.14.)

그림 II-8. 25-34세의 대학원 학위자 비율 국제비교(2022년)

우리나라의 학교 이행을 요약해 보면,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학에 가기 위해 졸업 후에도 입시 준비를 하는 재수생이 수험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치열한 입시 경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교육수익률 역시 낮아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동시에 재수 기간과 휴학 기간이 늘어 성인기 이행 지연을 더 가속화시키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2) 학교-일자리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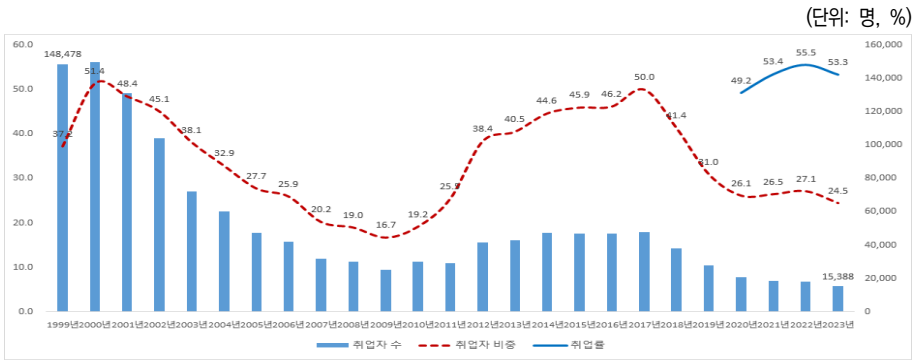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먼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의 졸업자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교 취업자 통계는 2020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DB와 같은 행정자료와 연계해 취업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취업률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데 전체 졸업자 중에 진학자와 입대자, 그리고 제외 인정자를 빼고 취업자의 비율로 취업률을 내고 있다. 취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및 법무부를 통해서 해외취업자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농림어업종사자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1인 창업자나 자영업자 정보를 취합해 산출하고 있다. 진학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학생 정보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타 법령 인정 교육기관의 진학자 정보를

통해 산출하고 있다. 예외인정자는 사망자이거나 외국인학생, 해외봉사단, 장애인, 수형자 및 장기입원자 등이다.

2020년 이전까지 이 자료는 유·초중등교육통계에 졸업 후 상황으로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기타 등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직업계고의 명칭이나 구성이 바뀌었는데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 직업계고의 명칭은 전문계고였고 2007년까지 실업계고로 불렸다. 2010년 고교 다양화조치로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바뀌었고 직업계고는 특성화고와 더불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 마이스터고와 직업계고의 직업반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을 통합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기간의 변화 추세를 보기 위해 과거 전문계고였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계수치는 교육부의 취업률이 아닌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로 살펴보았다.

특성화고(전 전문계고, 실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1999년 148,478명이었는데 급속하게 줄어들어 2009년 25,297명에 그쳤다. 이후 소폭 증가하여 특성화 졸업자 중 취업자는 2017년 48,001명으로 늘었으나 현장실습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고 2023년 현재 취업자 수는 15,388명에 그치고 있다. 취업자 비중은 2000년 전체 졸업자 중 51.4%를 정점으로 낮아져 2009년 16.7%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7년 50.0%까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후 취업자 비중은 낮아져 2023년 24.5%에 그쳤다. 특성화고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완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졸업자 4명 중 1명만이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부터 제시한 취업률은 졸업자 중 진학자와 입대자, 그리고 제외 인정자를 제외하고 취업자 수로 나눈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2020년 49.2%에서 2022년 55.5%로 늘어났으나 2023년 53.3%로 낮아졌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주) 취업자 비중은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이며 교육통계연보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취업률은 다음과 같음.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 인정자))×100. 2020년부터 취업을 산정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행정통계를 연계한 집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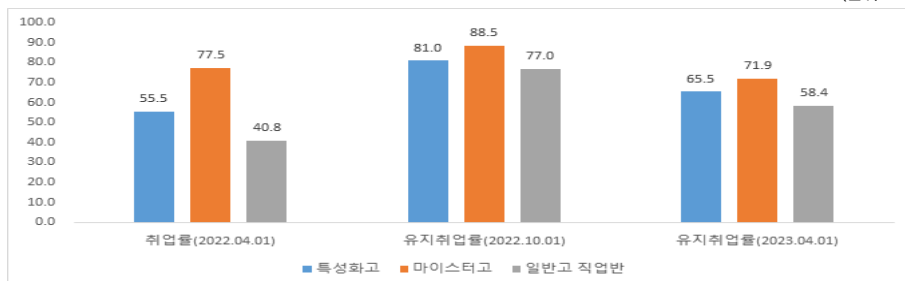
### 그림 II-9.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 및 취업자 비중(1999-202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부터 각종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해 정확하게 취업자 수를 집계하고 있는데 직업계고 유형별로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고교다양화 조치의 일환으로 기술장인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설립되었다. 2010년에 21개교를 시작으로 2023년 50개교로 늘어났다. 2023년 현재 졸업자는 5,929명으로 전체 직업계고 학생 중 7.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고 직업반은 일반고 학생 중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며 58개 일반고에 설치되어 있고 2023년 졸업자는 2,809명으로 전체 직업계고 학생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유지취업률은 당해연도 10월 1일과 차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취업자 중 취업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집계한 통계이다. 유지취업률은 졸업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먼저 취업률을 보면, 일반고 직업반이 40.8%로 가장 낮았고 마이스터고가 77.5%로 가장 높았다. 직업계고 유형별로 취업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10월 1일 시점에서 유지취업률을 보면 고교 유형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해 4월 1일 시점에서도 직업계고 유형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교 졸업 단계에서 취업이 이루어진다면 취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졸업 단계에서의 취업이 중요해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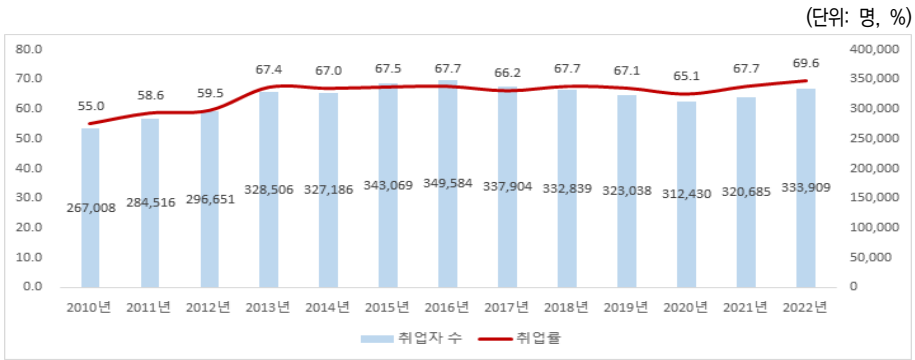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주)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 인정자))×100. 유지취업률 = (본조사 기준 보험가입자 중 1차(2차) 유지취업조사 기준일에 보험가입이 확인된 자/본조사 기준 보험가입자)×100.

## 그림 II-10. 직업계고 유형별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 비교(2023)

이어서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고등교육 졸업자는 일반대학교 외에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그리고 대학원을 포함한 결과이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인정자는 고교 조사와는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보건복지부DB),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한국교육개발원 집계), 여자군인 중 입관 전 훈련생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학교조사로 파악),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사업참여자(외교부DB) 등이 포함된다. 이 조사에서 취업률을 산정할 때 취업불가능자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도 포함되나. 이중 취업불가능자는 수형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학교조사), 사망자(국민건강보험공단 DB), 해외이민자(법무부DB) 등이 포함된다.

2010년 고등교육 졸업자 중 취업자는 267,008명이었고 졸업자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 인정자,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등을 제외하고 추정한 취업률을 보면, 2010년 55.0%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률은 2013년 소폭 증가해 67.4%를 보여준 후 현재까지 60% 중후반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 KESS(<https://kess.kedi.re.kr/>)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주)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 인정자+외국인 유학생 졸업자)×100. 2010년부터 취업률 산정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행정통계를 연계한 집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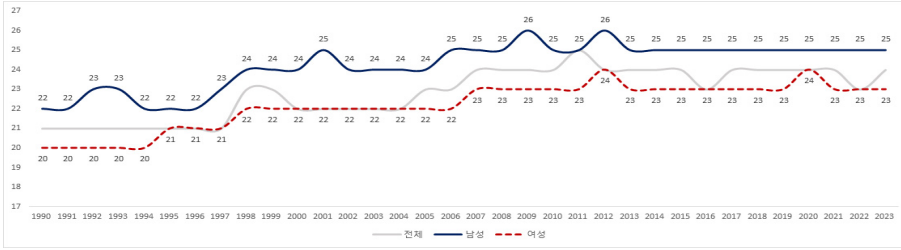
그림 II-11. 고등교육 졸업자 중 취업자 수 및 취업자 비중(2010-2022)

이어서 첫 취업 연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취업 연령은 인구동향조사의 초혼 연령처럼 장기간에 걸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OECD(2008)에서 첫 취업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연령에서 처음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50%를 넘는 연령을 측정하였는데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첫 취업 연령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며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이상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1990년 결과를 보면, 첫 취업 연령은 21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은 20세, 남성은 22세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차이는 군 입대와 대학 진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 취업 연령은 1998년을 기점으로 23세로 높아지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일자리 진입 시기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첫 취업 연령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2세였는데 2005년 23세, 2007년 24세로 높아졌다가 23세와 24세 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2023년 남성의 첫 취업 연령은 25세이며 여성은 23세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세)



\* 출처: 변금선, 김상현, 최지원, 김기현, 이승호, 이혜림(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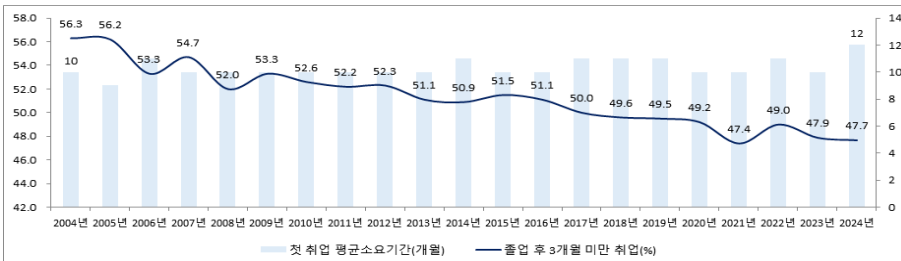
주) 여기에서는 첫 취업 연령은 매년 청년(15-29세) 연령집단 중에서 취업자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연령으로 추정

### 그림 II-12. 첫 취업 연령 추이(1990-2023년)

첫 취업 연령에 이어서 여기에서는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기간 및 3개월 미만 조기 취업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2004년 5월부터 파악할 수 있다.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2004년 5월 10개월로 나타났으며 이후 낮게는 9개월, 높게는 11개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24년 5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12개월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균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졸업·중퇴 후 3개월 미만에 취업한 조기 취업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기 취업률은 2004년 첫 조사에서 56.3%였는데 2018년 처음으로 50% 이하로 낮아졌고 2021년 코로나19로 47%대로 낮아진 후 2022년 회복세를 보여주었으나 다시 낮아지고 있다. 2024년 조기 취업률은 47.7%에 그쳤다. 이 결과는 첫 취업 연령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개월, %)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4). KOSIS(<https://kosis.kr/>) 경제인구활동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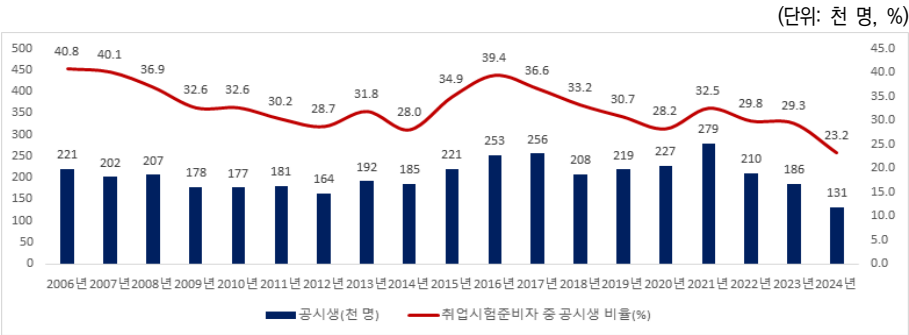
주) 매년 5월 조사 기준이며 청년 연령은 15-29세임. 조기취업은 졸업·중퇴 후 3개월 미만에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임.

### 그림 II-13. 청년의 졸업·중퇴 후 첫 취업 기간 및 조기취업 비율 추이(2004-2024년)

첫 취업 연령의 지연은 재수생의 확대가 학교 이행의 지연으로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생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임금 경쟁시장보다는 직무 경쟁 시장으로 특정 직업에 입직하는 것이 중요한 데다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긴 직무 대기열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재수생은 1년 이상 이어져 N수생으로 불리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역시 1년 이상 수험생활을 이어가 학교-직업 이행의 지연에 영향을 미쳐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취업시험 준비 여부를 묻고 있고 해당되는 취업 준비에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지를 묻고 있다. 공시생은 취업자와 실업자와 같은 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어 이 조사에서 제시된 규모는 과소추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업시험 준비 유형은 일반직 공무원 외에 일반기업체, 언론사/공영기업, 교원 임용, 고시 및 전문직, 기능 분야 및 기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조사에 추정된 공시생의 규모는 첫 질문이 포함된 2006년 5월 22만 1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중 40.8%로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생 비율은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14년 5월 28.0%까지 줄어들었는데 이후 급등해 2016년 5월 39.4%까지 상승했고 공시생 규모는 25만 6천 명까지 증가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경찰 및 소방공무원 정원을 늘린 결과로 보인다.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4). KOSIS(<https://kosis.kr/>) 경제인구활동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주) 매년 5월 기준이며 청년은 15-29세임. 여기에서 공시생은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취업시험준비로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로 일반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제외된 결과임.

그림 II-14. 청년 중 공시생 규모 및 비율 추이(2006-2024년)

공시생 규모는 2018년 낮아진 후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어 2021년 5월에 조사 집계 이후 가장 많은 27만 9천 명을 보여주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청년들의 공시생 유입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취업 시험 준비자 중 공시생 비율은 2020년까지 28.2%까지 낮아졌다.

최근 추세를 보면, 공시생 규모와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2024년 5월에 취업시험 준비자 중 비율이 23.2%까지 낮아졌고 13만 1천 명에 그쳤다. 공시생의 감소는 공무원 연금 혜택의 축소와 윤석열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을 줄인 결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공시생 외에 공영기업체나 교원임용 등 공공분야 시험 준비자는 줄었고 일반기업체 시험 준비자는 2022년 5월 23.9%에 2024년 5월 9.7%로 5.9%p 증가하였다. 일반기업체 시험 준비자는 2024년 5월에 역전이 이루어져 공시생보다 많은 16만 8천 명을 보여주었다.

### 3) 분가 및 가족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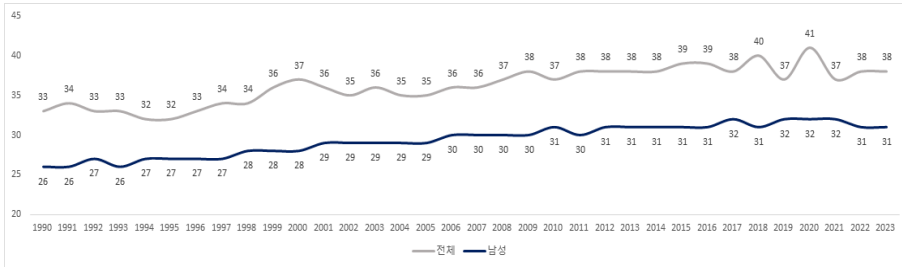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분가 및 가족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첫 분가 연령은 OECD(2008)에서 첫 취업 연령 추정 시 활용했던 방법으로 청년기에 처음으로 가구주가 50% 이상을 보여주는 첫 연령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가구주의 경우 부부 중에 남편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별이나 사별 후에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중 60대 이후에 나타나 제외하고 전체와 남성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첫 분가 연령은 1990년에 전체는 33세였고 남성은 26세로 나타났다. 첫 분가 연령은 이후 완만하게 증가해 2000년 이후 35세 이상을 보여주었고 2018년 이후 40세가 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남성은 2006년부터 30세 이상을 보여주었고 2010년 이후 30세와 31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주로 역할을 수행하는 연령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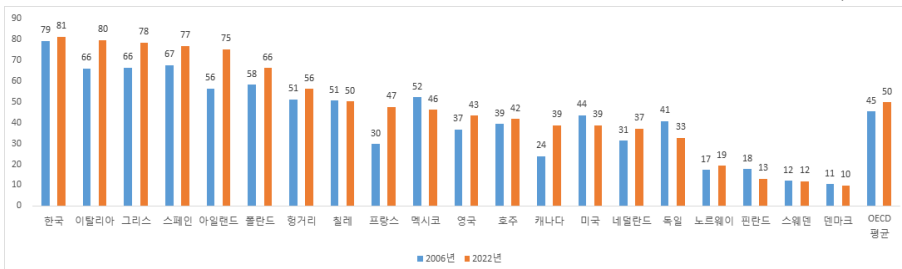
\* 출처: 변금선, 김상현, 최지원, 김기현, 이승호, 이혜림(2024)

주) 여기에서는 첫 분가 연령은 매년 청년(15~29세) 연령집단 중에서 가구주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연령으로 추정하였음.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이 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중 50% 이상이 가구주인 경우는 60대 이후에 발생해 여성의 결과는 제외하였음.

### 그림 II-15. 첫 분가 연령 추이(1990~2023년)

우리나라의 분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OECD(2024)에서는 사회통계(*Society at Glance*)를 통해 20대 중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20대의 부모 동거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49.7%로 우리나라는 무려 31.6%p나 높았다. 우리나라 20대의 부모 동거비율은 이탈리아(79.6%), 그리스(78.4%), 스페인(76.8%), 포르투갈(76.3%) 등 남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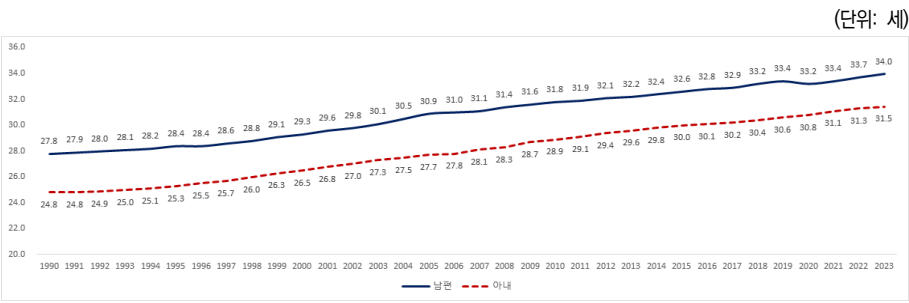
\* 출처: OECD(2024). *Society at a Glance*(<https://doi.org/10.1787/918d8db3-en>)(검색일: 2024.09.14.)

주) 부모 동거비율은 반올림한 수치임.

### 그림 II-16. 청년(20~29세)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 국제비교(2006/2022년)

남유럽 국가들은 2006년에 60%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70% 후반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 대비 2022년 가장 크게 20대 동거비율이 높아진 곳은 프랑스로 29.7%에서 47.5%로 무려 17.8%p나 높아졌다. 20대의 부모 동거비율이 2006년에 비해 2022년 낮아진 곳은 독일(40.7%→32.6%), 미국(43.5%→38.6%), 핀란드(17.7%→13.1%), 멕시코(52.2%→46.0%) 등이었다.

이어서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1990년 남편은 27.8세, 아내는 24.8세였는데 꾸준히 증가해 2003년 남편은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고 아내는 2015년에 처음으로 30세 이상을 보여주었다. 2023년 현재 초혼 연령은 남편은 34.0세, 아내는 31.5세로 이제 20대 초반이나 후반이 아닌 30대 초반에 처음 결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4), KOSIS(<https://kosis.kr/>) 인구동향조사 자료 인출(검색일: 2024.09.10.)

그림 II-17. 초혼연령 추이(1986-2023)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2024)에서는 사회통계(*Society at Glance*)에 초혼 연령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20대 부거 동거비율과는 달리 평균적인 수준의 결과로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이 2021년 기준으로 남성 30.4세, 여성 28.6세로 나이가 가장 적었고 스웨덴이 각각 37.5세와 34.8세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처럼 군 입대의 영향과 무관하게 성별 차이는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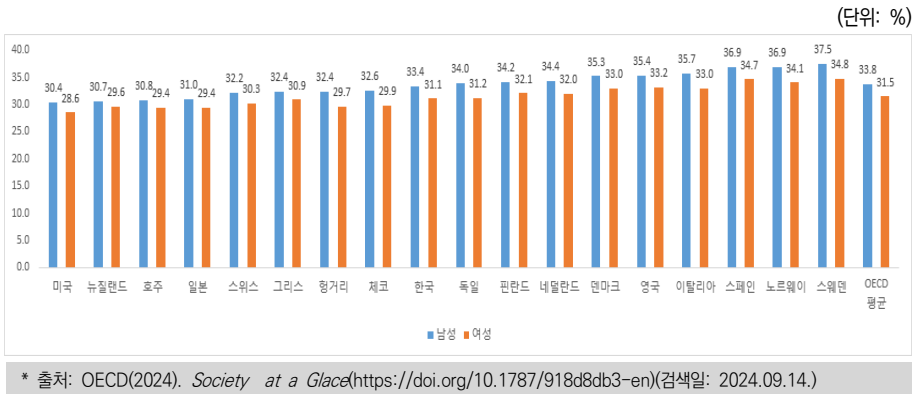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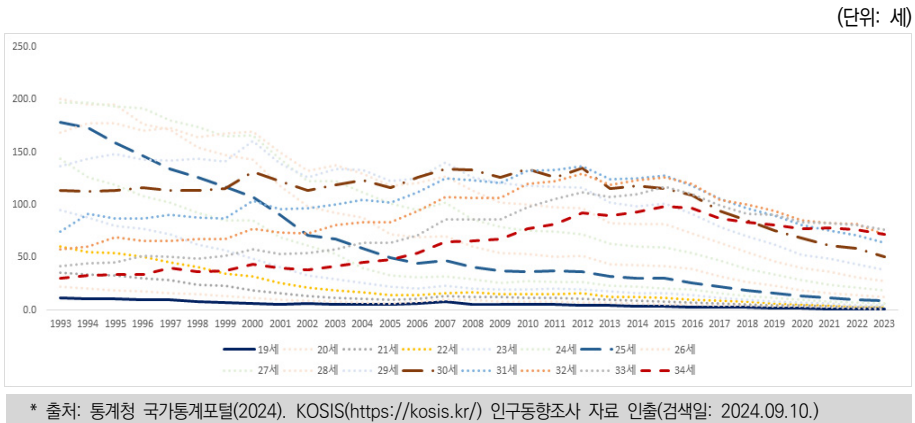


그림 II-18. 초혼연령 국제비교(2021년)

마지막으로 청년기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 1,000명 당 몇 명의 출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1993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19세의 모의 출산율은 1993년 1,000명 당 11.9명이었는데 계속 낮아져 2023년 0.9명이 되었다. 1993년 19세의 출산율과 유사한 출산율을 보여주는 2023년의 나이는 26세로 12.5명이었다.



주)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임.

그림 II-19. 모의 연령(19~34세)별 출산율 추이(1993~2023)

25세의 모의 출산율은 1993년 178.6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 8.8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9-34세 청년 시기에 가장 높은 모의 출산율은 33세로 76.3명이었고 1993년 당시 41.7세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세의 모의 출산율은 1993년 당시 113.5명으로 높았으나 2017년 10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3년 현재 50.6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93년 기준으로 22세(60.5세)와 가장 유사한 수준이다.





# 제3장 취업과 진학 선택 코호트비교

- 1. 이론적 배경
- 2. 연구 방법
- 3. 연구 결과



## 1. 이론적 배경\*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고등학교 시기는 취업과 진학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미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등학교 시점에서 이루어진 선택은 이후 성인기 이행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교육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좀 더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 취업을 선택한 학생은 좀 더 이른 나이에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

취업과 진학에 대한 선택을 다룬 연구들은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모두 고려하기보다 직업에 대한 선택과 교육에 대한 선택을 나누어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직업 열망 혹은 포부(occupational aspiration)나 직업기대(occupational expectation)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직업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career indecision)을 다루었다. 후자는 교육 열망 혹은 포부(educational aspiration)나 교육 기대(educational expect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개념적으로 열망 혹은 포부에 주목하느냐, 기대에 주목하느냐에는 차이가 있다(박수익, 2010; 108-109). 열망이나 포부는 미래에 얻고 싶은 직업이나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데 반해 기대는 현실적인 진단을 토대로 성취할 수 있는 직업이나 교육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대안 중에서 가장 희망하는 직업(Gottfredson, 1981)이나 교육(Morgan, 1998)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에 대한 측정은 직업의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위세

직업 선택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포부나 열망, 기대와는 달리 아직 원하는 직업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심을 기울였다(Gati & Krausz, 1996). 이는 미래의 교육 수준과는 달리 진로나 직업에 대한 미결정 상태에는 있는 사례가 늘어났고 학교 졸업 후에 교육도, 일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 같이 미래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어지는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진로미결정에 관한 측정은 진로 미결정도구(career indecision inventory)를 한국형으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탁진국, 이기학, 2001). 해당 측정 도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희망 직업 유무 등을 활용해 이항 변수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강영배, 김기현, 2004).

취업이나 진학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Shu & Marini, 1998; 박수역, 2010; 심경섭, 설동훈, 2010; 이중범, 최동선, 오창환, 2012; Sikora & Saha, 2013)과 학업성취도로 측정되는 개인의 능력(Alexander & Cook, 1979; 이혜란, 이지은, 류신혜, 2024)과 자원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활동(조현재, 2014), 그리고 부모 및 교사, 친구와의 관계(Sewell & Hauser, 1980; 어운경, 2011; 이진구, 이기학, 2019), 흥미와 적성(Super, 1957), 자아존중감(self esteem)이나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과 같은 심리적 요인(김경주, 송병국, 2011) 등이다.

두 번째는 가족배경 요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자산, 출생 순서, 형제자매수 등이다(유홍준, 김기현, 신인철, 오병돈, 2013; 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19). 이 밖에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나 양부모 여부 등도 가정배경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교 요인으로 고교계열(일반계고, 직업계고), 고교소재지, 등이 다루어졌다(강영배, 김기현(2004). 고교계열과 관련하여 박수역(2010: 115)은 일반계고에 비해 직업계고의 교육기대 수준이 낮게 추정된 결과에 대해서 서열화된 계열에서 낮은 계열에 속할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수 있다는 냉각효과(cooling out)를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미결정과 교육기대 변수를 활용하여 4가지 값으로 취업과 진학 선택을 구분해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취업과 진학 선택은 미래 직업을 정하지 않았고 대학 이상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집단을 기준범주로 미래 직업을 정하지 않았고 대학 이상 진학을 선택한 집단, 직업을 정했고 대학 이상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집단, 직업을 정했고 대학 이상 진학을 선택한 집단과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교육기대와 직업미결정을 결합해 새로운 변수로 분석을 시도한 것은 각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은 대신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해서 분석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진학이 취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태와 이러한 경향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 2.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대상

이 연구에서는 KYPS 2003년과 KCYPS 2010, 그리고 KCYPS 2018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기 이행 이전 고3 시점에 취업과 진학 선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분석한 자료는 KYPS 2003년의 5차 조사(2007년)와 KCYPS 2010의 6차조사(2015년), 그리고 KCYPS 2018의 6차조사(2023년) 자료이다.

세 조사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은 고3 시점에서 진로설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장래 직업결정 여부와 교육기대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두 변수를 결합해 취업과 진학 선택여부를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KYPS 2003년과 KCYPS 2010, 그리고 KCYPS 2018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기 이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고교 졸업 후 이행에 대해서 장래 직업미결정과 관련하여 KYPS 2003년 문항은 “귀하는 현재,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 포함)을 정해 놓은 상태인가요?”라고 묻고 있으며 답변으로 “1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2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강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3 아직 정해 놓은 장래의 직업이 없다”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KCYPS

---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010의 중1패널의 6차 조사(2015년), 그리고 KCYPS 2018의 중1패널의 6차 조사(2023년)의 문항은 동일한데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정하였습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응답 순서는 반대로 “1.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2.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도록 했다.

교육기대와 관련하여 KYPS 2003년 질문은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답변은 “0. 잘 모르겠다, 1. 중졸, 2. 고졸, 3. 초대졸(2-3년), 4. 대졸(4년제), 5. 대학원졸(석사 및 박사)”로 나누어졌다.

KCYPS 2010의 중1패널에서 해당 질문(“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에 대한 답변은 약간 달라졌는데 “1. 고등학교 졸업, 2. 2-3년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5.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6.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등이었다. KCYPS 2018의 중1패널에서는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합쳐서 질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미결정과 교육기대 변수를 활용하여 고3 시점에서 취업과 진학 선택 변수를 조작화했다. 이 변수는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고 고졸까지 공부하거나 향후 계획을 정하지 못한 경우를 1,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고 대졸(2년제 포함) 이상까지 공부할 계획인 경우를 2, 대강 혹은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고 고졸까지 공부하거나 향후 계획을 정하지 못한 경우를 3, 대강 혹은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고 대졸(2년제 포함) 이상까지 공부할 계획인 경우를 4로 정의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직업미결정·대학미진학(미결정 포함)을 기준범주로 직업미결정·대학진학, 직업결정·대학미진학(미결정), 직업결정·대학진학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에 대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들로는 개인요인으로 성별, 학업성취도, 자원봉사활동 여부, 직업체험활동 여부, 자아존중감을, 가족배경 요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소득을, 학교 요인으로 고교계열(일반계고, 직업계고), 고교소재지 등을 투입하였다.

### 3. 분석 결과\*

#### 1) 고3의 취업과 진학 선택 실태 코호트비교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취업과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 앞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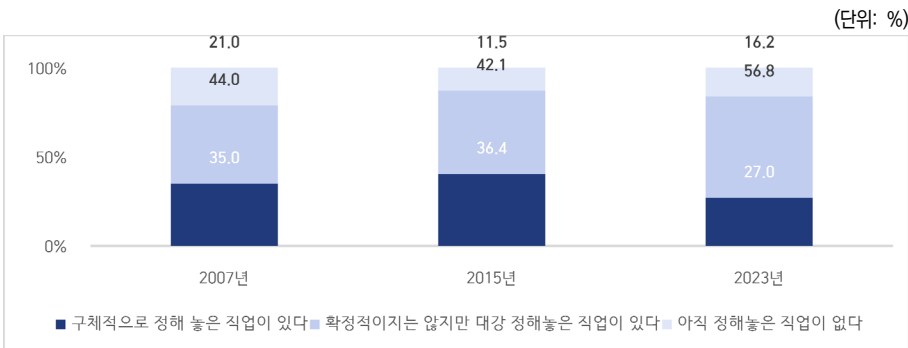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서 각 코호트별로 취업과 진학 선택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취업 선택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정하였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았다.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KYPS 2003년 중2패널이 고3 학생이 되는 2007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고3 학생은 35.0%였고 “확정적이지 않지만 대강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4.0%였다. 직업미결정 상태인 학생은 21.0%였다.

KCYPS 2010년 중1패널이 고3 학생이 되는 2015년의 응답 결과는 각각 36.4%, 42.1%, 11.5%였다.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없다”는 응답이 2003년 중1패널과 비교해 9.5%p나 낮아졌고 미래의 직업을 결정한 상태의 학생은 소폭 상승(1.4%p)했다.

KCYPS 2018년 중1패널이 고3 학생이 되는 2023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강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이 56.8%로 KYPS 2003년 중2패널의 결과(44.0%)나 KYPS 2003년 중2패널(42.1%)보다 컸다. 구체적으로 직업을 정해 놓은 학생 비중은 27.0%로 2015년 결과(36.4%)는 물론 2007년(35.0%) 보다 낮아졌다.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 비중은 16.2%로 2007년(21.0%)보다 낮으나 11.5%를 보여준 2015년보다 높아졌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3년 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중2패널 6차조사(2007년), 2010년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중1패널 7차조사(2015년), 2018년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중1패널 7차조사(2023)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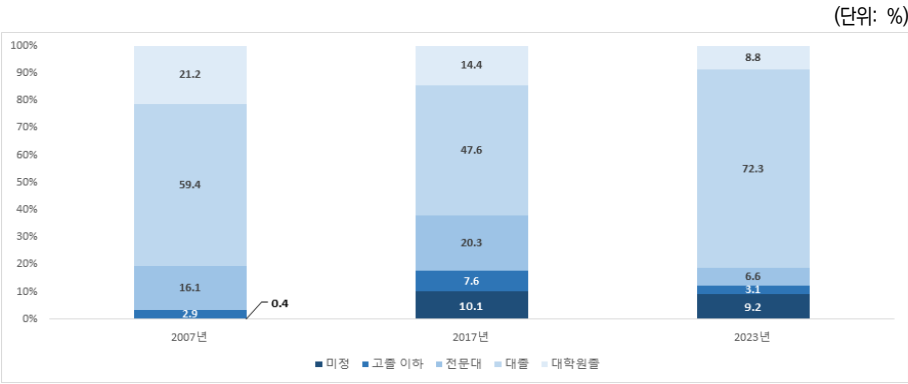
주) 각 패널조사에서 고3시점인 자료에서 응답자가 현재 재학 중인 경우만을 분석함.

**그림 Ⅲ-1. 코호트별 고3 시기 취업 선택 여부 응답 비교(2007/2015/2023)**

이어서 교육기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고3학생 중에서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0.4%였다. 현재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까지만 다닐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그쳤다.

전문대까지 가겠다는 응답은 16.1%였고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겠다는 응답은 59.4%였다. 대학원까지 가겠다는 응답은 21.2%로 5명 중 1명꼴로 대학원 진학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후인 2015년 결과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향후 교육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0.4%에서 10.1%까지 증가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미래 교육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 설계상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KYPS 2003년 중2패널 조사는 조사시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 수능시험을 전후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이경상, 2003). 반면 KCYPS 2010년 중1패널 조사나 KCYPS 2018 중1패널 조사는 8월이나 9월에 시작해 11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이경상, 백해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하형석, 김성은, 이용해, 2019). 이러한 조사 시점 이 교육기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가져온 측면이 있어 보인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3년 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 중2패널 6차조사(2007년), 2010년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중1패널 7차조사(2015년), 2018년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중1패널 7차조사(2023) 원자료

주) 각 패널조사에서 고3시점인 자료에서 응답자가 현재 재학 중인 경우만을 분석함.

**그림 III-2. 코호트별 고3 시기 교육기대 응답 비교(2007/2017/2023)**

이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교까지만 다니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9%에서 7.6%까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직업계고의 경우 특수목적고인 마에스터고가 신설되었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로 교육과정을 끝낸 시점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재개되

면서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상승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교육기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23년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응답이 72.3%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다른 응답을 모두 수렴한 결과인데 우선 2007년 21.2%, 2015년 14.4%였던 대학원 진학은 8.8%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고급인재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원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전문대 진학도 같은 기간 16.1%, 20.3%에서 6.6%로 크게 낮아졌다.

2015년 7.6%로 크게 상승했던 고교까지만 다니겠다는 응답은 2023년 3.1%로 낮아졌다. 대졸 노동시장이 협소하고 고졸 노동시장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다.

## 2) 고3의 취업과 진학 선택 결정요인

여기에서는 세 가지 코호트별로 고3 시점에서 취업과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가장 오랜 전에 실시되었던 KYPS 2003의 중2패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고3 학생이 되었을 때인 2007년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다항로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독립변수 중에서 여러 문항들로 구성된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KYPS 2003에서는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활용한 백혜원(1993)의 자아존중감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2007년 조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패널 응답자는 2,887명이었고 총 6가지 문항 중에서 제외했을 때 신뢰도 값(Cronbach  $\alpha$ )을 높이는 경우가 없었다. 이를 반영해 이 연구에서는 6가지의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값으로 전환해 자아존중감 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III-1. KYPs 2003 자아존중감 신뢰도 분석 결과

| 문항                             | 상관계수 | (제외 시)<br>Cronbach $\alpha$ |
|--------------------------------|------|-----------------------------|
|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491 | .733                        |
|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531 | .724                        |
|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511 | .729                        |
|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503 | .731                        |
|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472 | .740                        |
|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 .542 | .719                        |
| 전체 문항                          | -    | .764                        |

주) 전체 표본수는 2,887명임.

이어서 다항로짓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고교유형, 성별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KCYS 2003 고3학생의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 분석(multi-nominal logit)

| 변수                    | 취업미결정·대학미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취업미결정·대학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취업결정·대학미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
| 학업성적                  | -.276(.127)*              | -.010(.028)              | -.279(0.95)**            |
| 자아존중감                 | -.268(.436)               | -.433(.098)***           | .208(.305)               |
| 성별(여성=1)              | .463(.502)                | .878(.118)***            | -.027(.367)              |
| 자원봉사활동 경험(있음=1)       | .095(.765)                | .480(.142)**             | 1.161(617) <sup>†</sup>  |
| 아르바이트 경험(있음=1)        | -.868(.614)               | .134(.258)               | -.884(.493) <sup>†</sup> |
| 고교계열(직업계고=1)          | 1.662(.565)**             | .000(.151)               | 1.327(.406)**            |
| 고교소재지(서울=1)           | -.039(.777)               | -.212(.160)              | .301(.624)               |
| 아버지 교육(대졸 이상=1)       | .328(.701)                | -.219(.138)              | .200(.503)               |
| 어머니 교육(대졸 이상=1)       | -.805(.856)               | .240(.166)               | -.693(.655)              |
| 아버지 직업(관리/전문직=1)      | -.152(.835)               | -.013(.170)              | .235(.655)               |
| 가구소득                  | -.888(.457) <sup>†</sup>  | .141(.138)               | -.439(.383)              |
| 절편                    | 3.371(3.278)              | -1.515(.969)             | -.466(2.679)             |
| Pseudo R2(Nagelkerke) | .109                      |                          |                          |
| N                     | 2,887                     |                          |                          |

주)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학업성적은 취업할 직업을 결정하고 대학 진학도 결심한 집단 대신 직업도 대학 진학도 결정하지 못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동시에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둘 다 결정한 집단보다 취업할 직업은 정했으나 대학 진학을 결심하지 못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추정되었다. 그런데 대학은 진학할 결심이 섰으나 취업할 직업을 정하지 못한 집단에 참여하는 데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과는 달리 직업도 정하고 대학도 가려는 집단 대신 대학에 진학할 결심이 섰으나 취업할 직업을 정하지 못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더라도 다른 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교 계열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업계고 고3학생인 경우 대학을 미진학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직업계고가 완성교육으로 고교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인데 대학을 진학하지만 직업은 정하지 못한 집단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양한 활동 경험이 취업과 진학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 활동 경험은 미결정과 미진학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해 정(+)의 효과를, 아르바이트 경험은 부(-)의 효과가 있었다. 다만, 취업할 직업을 결정했는데 대학 진학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고졸로 남으려는 집단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10%의 유의수준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족배경 변수로 투입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고 가구소득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취업과 대학 미결정 혹은 미진학 집단에 참여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KCYPS 2010년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아존중감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를 보면, 총 10개 문항 중에서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항을 제외했을 때 신뢰도 값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8번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을 합산한 후 평균값으로 자아존중감 문항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III-3 KCYPs 2010 자아존중감 신뢰도 분석 결과

| 문항                                | 상관계수        | (제외 시)<br>Cronbach's $\alpha$ |
|-----------------------------------|-------------|-------------------------------|
|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 .599        | .833                          |
|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592        | .833                          |
|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 .612        | .831                          |
|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 .492        | .842                          |
|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683        | .824                          |
|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 .654        | .827                          |
|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554        | .837                          |
| <b>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b>   | <b>.111</b> | <b>.875</b>                   |
|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628        | .829                          |
|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640        | .829                          |
| 전체 문항                             | -           | .851                          |

주) 전체 표본수는 2,010명임.

이어서 KCYPs 2010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 고교계열,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KYPs 2003을 분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결정과 대학진학 집단 대신 취업결정이나 취업미결정 상태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부(-)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이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III-4. KCYPS 2010 고3학생의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 분석(multi-nominal logit)

| 변수                    | 취업미결정·대학미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취업미결정·대학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취업결정·대학미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
| 학업성적                  | -.253(.080)**             | -.043(.046)              | -.098(.038)*             |
| 자아존중감                 | -1.985(.391)***           | -.671(.046)**            | -.096(.179)              |
| 성별(여성=1)              | .118(.351)                | .176(.197)               | -.054(.170)              |
| 자원봉사활동 경험(있음=1)       | .358(.559)                | .101(.259)               | -.171(.211)              |
| 아르바이트 경험(있음=1)        | 1.087(.660) <sup>†</sup>  | .203(.311)               | .354(.242)               |
| 고교계열(직업계고=1)          | 1.360(.406)**             | -.270(.369)              | 1.701(.195)***           |
| 고교소재지(서울=1)           | 1.375(1.035)              | -.026(.317)              | .781(.355) <sup>†</sup>  |
| 아버지 교육(대졸 이상=1)       | .229(.512)                | -.070(.276)              | -.083(.244)              |
| 어머니 교육(대졸 이상=1)       | -.442(.509)               | -.007(.270)              | -.317(.240)              |
| 아버지 직업(관리/전문직=1)      | .074(.494)                | .289(.257)               | -.262(.207)              |
| 가구소득                  | -1.152(.408)**            | .232(.244)               | -.516(.209)*             |
| 절편                    | 12.197(3.743)**           | -1.986(2.263)            | -2.897(1.910)            |
| Pseudo R2(Nagelkerke) | .154                      |                          |                          |
| N                     | 2,010                     |                          |                          |

주)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자아존중감은 KYPs 2003과는 달리 취업과 진학을 결정한 집단 대신 둘 다 결정하지 못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고교 계열은 KYPs 2003과 동일하게 대학미진학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볼 때 취업할 직업을 정한 경우와는 달리 이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의 효과가 나타나 직업계고 고3학생의 직업미결정성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KCYPs 2018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면, KCYPs 2010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항을 제외했을 때 신뢰도 값이 높았다. 여기에서도 9가지 문항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III-5. KCYPS 2018 자아존중감 신뢰도 분석 결과

| 문항                                | 상관계수        | (제외 시)<br>Cronbach's $\alpha$ |
|-----------------------------------|-------------|-------------------------------|
|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 .376        | .763                          |
|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489        | .748                          |
|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 .530        | .743                          |
|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 .523        | .744                          |
|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496        | .747                          |
|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 .550        | .739                          |
|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492        | .749                          |
| <b>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b>   | <b>.000</b> | <b>.809</b>                   |
|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451        | .753                          |
|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547        | .741                          |
| 전체 문항                             | -           | .774                          |

주) 전체 표본수는 3,346명임.

마지막으로 KCYPS 2018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고교계열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의 유의수준에서는 성별과 아버지의 직업,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학업성적으로 보면, 이전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이 높으면 미결정 집단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I-6. KCYPS 2018 고3학생의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 분석(multi-nominal logit)

| 변수                    | 취업미결정·대학미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취업미결정·대학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취업결정·대학미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
| 학업성적                  | -.818(.229)***            | -.101(.088)              | -.466(.109)***            |
| 자아존중감                 | -.164(.383)               | .778(.151)***            | -.501(.191)**             |
| 성별(여성=1)              | .344(.366)                | .179(.132)               | .268(.161) <sup>†</sup>   |
| 자원봉사활동 경험(있음=1)       | -.119(.413)               | .133(.165)               | .186(.202)                |
| 아르바이트 경험(있음=1)        | -.360(.376)               | -.350(.143)*             | .057(.177)                |
| 고교계열(직업계고=1)          | 1.788(.391)***            | .290(.230)               | .924(.224)***             |
| 고교소재지(서울=1)           | -.297(.424)               | .219(.182)               | -.155(.206)               |
| 아버지 교육(대졸 이상=1)       | -.018(.444)               | -.161(.176)              | -.025(.203)               |
| 어머니 교육(대졸 이상=1)       | .417(.439)                | -.016(.177)              | .157(.202)                |
| 아버지 직업(관리/전문직=1)      | -.618(.373) <sup>†</sup>  | -.208(.137)              | .157(.177)                |
| 가구소득                  | -.401(.403)               | -.077(.157)              | -.346(.188) <sup>†</sup>  |
| 절편                    | -.389(1.871)              | -3.762(.742)***          | -1.645(.886) <sup>†</sup> |
| Pseudo R2(Nagelkerke) | .091                      |                          |                           |
| N                     | 3,346                     |                          |                           |

주)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자아존중감은 이전 조사와는 달리 고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부(-)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전 조사와 다른 또 다른 결과는 대학진학을 정했으나 직업을 정하지 못한 집단에 미치는 정(+)효과로 이전 조사에서는 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취업이나 진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고교 계열은 KCYPS 2018에서도 동일하게 대학 미진학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취업을 위한 직업을 정한 집단보다는 이 역시 정하지 못한 집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완성교육임에도 자신의 미래 직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 ○ — 제4장 성인기 이행 영향 요인 분석

- 1. 이론적 배경
- 2. 연구 방법
- 3. 연구 결과



## 1. 이론적 배경\*

Hogan & Astone(1986)은 미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이행 과정의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성별, 인종, 가족배경(사회 계급 또는 계층)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의 자녀들은 성인 이행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Osgood, Foster, & Sourtney, 2010). 이러한 차이의 일부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 이용 가능한 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은 성별, 인종, 가족배경에 따라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는 성인기 이행을 비롯하여 성인기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별, 인종, 가족배경은 성인기 이전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교육 및 사회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의 차이는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 기대는 인종과 가족배경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성별과 가족배경은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8; 이상직, 2022; 이지혜, 2023). 미국에 비해 가부장제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와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서 성별은 가족배경과 함께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의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에 따른 성인기 이행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회조사가 인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

\* 이 장은 오병돈 조교수(뉴욕주립공과대학)이 작성하였음.

첫째, 우리나라에서 성별과 가족배경에 따른 최종학력의 차이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만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2003년 고등학교 취학률은 93.3%이며, 성별이나 가족배경에 따른 고등학교 취학률의 차이는 미비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만 18세에서 21세 사이 청소년의 대학교 취학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76.2%에 도달하였으나, 고등학교 진학에 비하여 대학교 진학은 성별과 가족배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김기현, 방하남, 2005; 방하남, 김기현, 2002; 한국교육개발원, 2023). 또한 고등교육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학졸업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과 가족배경은 대학원 진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환 2022). 성별과 가족배경이 고등교육 진학 및 졸업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 교육성과를 통해 매개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는 그들의 자녀와 높은 수준의 교육 열망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교육열망은 이들의 고등학교 학습참여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차충천, 오병돈, 2012).

둘째, 성별, 가족배경, 고등학교 교육성과는 학교 교육을 끝내고 첫 번째 정규직 또는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는 과정을 의미하는 학교-일자리 이행에도 영향을 준다(김기현 외, 2021). 청년 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취업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권혁진, 유호선, 2011; 오유진, 김교성, 2019). 첫 일자리 진입 시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른 편이지만, 여성 청년의 고용의 질은 남성 청년보다 열악한 편이다(강순희 2016; 김기현 외, 2021). 한편, 고학력자의 첫 취업 시기는 저학력자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의 첫 일자리로 진입하여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권혁진, 유호선, 2011; 오유진, 김교성, 2019). 최근 최종학교 졸업 이후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고용의 질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김기현 외, 2021; 이희정, 2019).

셋째, 부모와 살던 가구에서 분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역량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한 청년에게서 크게 나타난다(고원식, 김대일, 2019). 하지만 초기 성인기에 부모의 도움없이 우리나라의 비싼 부동산 시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청년들은 드물다(김진영, 이현정, 2020; 노민지, 2022).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이 자녀의 주거 독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모 중 일부는 자녀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자금을 미리 제공한다고 여긴다(김진영, 이현정, 2020).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가부장제적인 사회규범으로 인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이윤석, 2011).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보다 일찍 분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성별, 가족배경, 고등학교 교육성과가 초기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이라는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3가지 역할(최종학교 졸업, 취업, 분가) 이행 중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성인기 이행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최종학교 졸업, 취업, 분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3가지 역할이행의 조합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적 의미가 상당히 상이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직후 구직 활동을 시작하여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다가 20대 중반에 분가하는 청년과 명문대학 졸업 이후 양질의 첫 일자리를 확보한 뒤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20대 중반에 분가하는 청년이 경험하는 성인기 이행 과정의 차이는 상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기 이행의 실질적 차이는 최종학교 졸업, 취업, 분업을 별도로 연구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초기 성인기 이행의 실질적인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최종학교 졸업, 취업, 분업에 더불어 군복무를 초기 성인기 이행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다른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군복무 여부와 시기는 우리나라 남성 청년들이 경험하는 초기 성인기 이행 패턴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행 과정의 성별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먼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 취업, 분업, 군복무의 여부와 시기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사이에 경험하는 성인기 이행의 몇 가지 대표적인 패턴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패턴의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 집단들 간의 성별, 가족배경, 고등학교 교육성과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 2.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대상

KCYPS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기 위해 구축된 패널조사이다. 2003년을 시작으로 KCYPS 본조사는 현재까지 총 3기(2003~2008년, 2010~2016년, 2018~2024년 현재)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제2기 패널 조사에 해당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이하 KCYPS 2010)은 초1, 초4, 중1의 3개 코호트를 대상으로 매년 추적 조사해서, 이들이 각각 중1, 고1, 대1이 되는 2016년에 총 7차에 걸친 본 조사를 마감하였다. 이 중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차에 걸친 유지조사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시행된 KCYPS 2010 중1 패널 본 조사 자료와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시행된 유지조사를 통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KCYPS 2010 중1 패널의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기간의 교육 태도 및 성과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유지조사에서는 교육, 직업, 분가, 군복무 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가 매년 추가로 수집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 활용된 KCYPS 2010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약 13세에서 26세에 이르는 총 14년의 기간 동안 경험하는 초기 성인기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교육, 직업, 분가, 군복무 여부가 수집된 7차 본조사(2016년)와 총 7차 유지조사(2017~2023년)에 참여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최종 표본의 크기는 남성 269명과 여성 326명이다.

### 2) 분석 방법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표적인 성인기 이행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분석의 1단계에서는 최종 학교 졸업, 취업, 분가, 군복무의 여부와 시기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경험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성인기 이행 패턴을 식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2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성인기

---

\* 이 장은 오병돈 조교수(뉴욕주립공과대학)이 작성하였음.

이행 패턴을 경험하는 집단들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성별, 가족배경, 고등학교 교육성과)를 살펴본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 방식의 핵심은 분석의 1단계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성인기 이행 패턴을 밝혀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가지 성인기 역할(최종 학교 졸업, 취업, 분가) 이행 여부는 KCYPS 2010 중1패널 본조사 7차가 시행된 2016년에 이어서 7차례의 유지조사가 실시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회에 걸쳐 반복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16,777,216(=2^3)^8$ 가지의 패턴이 해당 분석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추가하면  $4,294,967,296(=2^4)^8$ 가지의 패턴이 가능하다. 실제 남성과 여성 자료에서는 각각 292가지와 262가지의 초기 성인기 이행 패턴이 확인되었다. 모든 관찰된 패턴을 망라하는 분석의 결과는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반복 측정 변수를 활용한 잠재 계급 분석(Repeated-measure Latent Class Analysis, 이하 RMLCA, 또는 Lo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LCA)’를 활용한다. 잠재 계급 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은 방법론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분석 방법이다(Oh & Kim, 2023). LCA는 측정된 범주형 변수들을 바탕으로 측정되지 않은 몇 개의 숨은 하위집단(이른바 잠재 계급)을 찾아내기 위해 일군의 학자들에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Hagenaars & McCutcheon, 2002; Lanza et al., 2007). 요인 분석(factor analysis)과 달리 LCA는 분석 대상들을 상호 배타적인 잠재 집단으로 구분한다. 즉, LCA를 통해 식별된 한 잠재 집단에 속한 대상들은 다른 잠재 집단에 속한 다른 대상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패턴을 공유한다.

KCYPS 2010 본조사와 유지조사의 경우처럼 측정 변수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반복 측정된 경우에는, 반복 측정된 변수들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RMLCA 또는 잠재 성장 곡선 분석(Latent Growth Curve Analysis, 이하 LGCA)을 사용해야 한다. 특정년도에 수집된 한 개인의 응답과 그 이전 및 이후 시기에 수집된 동일 개인의 응답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RMLCA와 LGCA는 모두 비행 및 건강 행위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사회 과학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Lanza & Collins, 2006; McCarthy et al., 2015; Patrick et al., 2017). RMLCA는 측정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사용되며, 측정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LGCA가 적합하다. KCYPS 2010와 유지조사에서 교육,

취업, 분가, 군복무의 여부는 이항범주형(예 또는 아니오)으로 반복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RMLCA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 방법들은 모두 자료에 기반한 탐색적인 연구 방법들(data-driven exploratory methods)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전의 장에서 논의한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함을 미리 밝혀둔다.

분석 1단계에서 RMLCA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몇 가지 일반적인 성인기 이행 패턴을 식별한 이후, 분석 2단계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독립변수)과 성인기 이행 패턴(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한다. KCYPS 2010의 1차부터 7차에 걸쳐 측정된 광범위한 변수들 중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과를 독립변수로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가족배경 변수는 가구 소득(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부모의 직업군(전문직 및 관리직, 그 외 직업군), 부모의 교육 수준(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거주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 그 외 지역)이고, 교육성과 변수는 고등학교 유형(인문계, 그 외 유형), 주관적 고등학교 성적 평가(우수, 보통, 미흡)이다.

본 연구는 모든 분석 모형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규범과 역할 기대의 차이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인기 이행의 사회적 맥락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기현 외, 2021; 이운석, 2011; Hogan & Astone, 1986).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의 병역 의무 때문에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패턴의 성별 통합 분석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는 초기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 3. 연구 결과\*

KCYPS 2010은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해(본조사 7차 연도)부터 8년동안 매년 교육, 취업, 분가 여부를 질문하였다. 남성 응답자에게는 군복무에 여부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그림 IV-1]은 성별을 구분하여 각 문항 응답 비율 결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1차 연도에 절반 이상인 52.5%가 재학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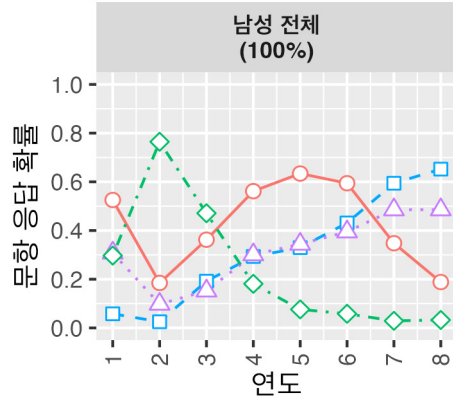
\* 이 장은 오병돈 조교수(뉴욕주립공과대학)가 작성하였음.

살던 집에서 나와 분가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30.8%, 군복무 중인 응답자는 28.7%였다. 취업하였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7%에 불과하였다. 2차 연도에는 군복무 중인 응답자의 비율이 76.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재학 중인 응답자와 분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36.2%와 9.8%로 감소하였다. 취업자의 비율은 2.5%였다. 군복무 중인 응답자의 비율은 3차 연도에 47.1%로 떨어졌으며 감소세가 계속되어 6차 연도 이후에는 5% 이하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재학 중인 응답자의 비율은 2차 연도 이후부터 증가하여 5차 연도에 정점인 63.4%를 지나 8차 연도에 18.8%로 다시 감소하였다. 취업한 응답자와 분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2차 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차 연도에는 각각 65.2%, 48.6%에 도달하였다.

여성의 경우, 1차 연도에 85.5%의 응답자가 재학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재학 중인 응답자의 비율은 2차 연도에 89.7%로 살짝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8차 연도에는 9.4%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취업자의 비율은 1차 연도에 최저치의 8.8%에서 점차 증가하여 8차 연도에 75.2%에 도달하였다. 분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1차 연도에 34.2%에서 8차 연도에 45.2%로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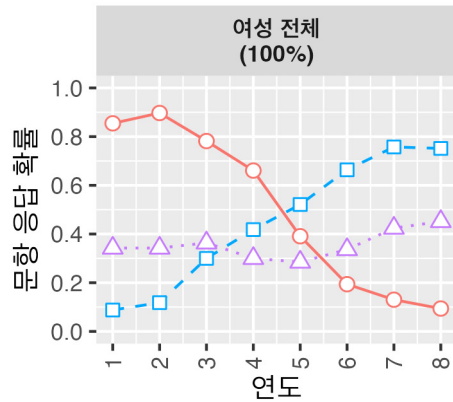
## 남성

교육 취업 분가 군복무



## 여성

교육 취업 분가



\* 종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표본 수: 남성 269명, 여성 326명

그림 IV-1.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 취업, 분가, 군복무 여부의 시간적 변화

대부분의 청년들이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첫 일자리를 갖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교육과 취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하지만 [그림 IV-1]에 나타난 기술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패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하다. 첫째, 의무 군복무로 인해 남성의 최종학교 졸업과 취업이 여성에 비해 늦었다. 둘째, 남성의 분가 비율은 취업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지만, 여성의 분가 비율은 취업 비율의 증가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는 편이다.

표 IV-1. 반복 측정 변수를 활용한 잠재 계급 분석 모형 적합도

| 잠재 계급 수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          |
|---------|-------------------------------------|----------|
|         | 남성                                  | 여성       |
| 1       | 8480.390                            | 8115.151 |
| 2       | 8201.924                            | 7828.651 |
| 3       | 7770.262                            | 7676.660 |
| 4       | 7599.580                            | 7599.506 |
| 5       | 7671.569                            | 7644.305 |
| 6       | 7690.657                            | 7660.759 |
| 표본 수    | 269                                 | 326      |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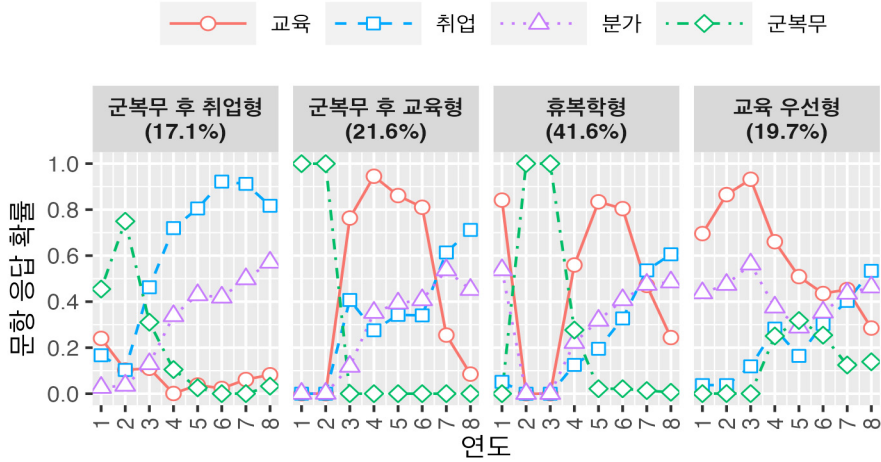
다음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이행의 대표적인 패턴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RMLCA를 실행하였다. <표 IV-1>은 잠재 계급 수를 1부터 6까지 증가하면서 실행한 RMLCA의 모형 적합도(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이하 BIC)를 보여준다. BIC가 낮을수록 분석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성별에 상관 없이 잠재 계급 수가 1부터 증가함에 따라 BIC가 감소하다가 4계급 모형 이후 BIC가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4계급 모형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RMLCA 분석의 다음 단계는 식별된 각 잠재계급의 문항 응답 확률을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 IV-2]는 각 잠재계급의 각 문항 응답 확률과 명명된 이름을 비롯하여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남성의 첫 번째 잠재계급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군복무를 마치고 추가적이 교육 없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2차 연도 이후 취업 확률과 함께 분가 확률도 점차 증가하였으나 분가 확률의 증가는 취업 확률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이 재학 중일 확률은 1차 연도에 2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남성 표본의 17.1%를 차지하는 첫 번째 남성 잠재계급의 이름은 ‘군복무 후 취업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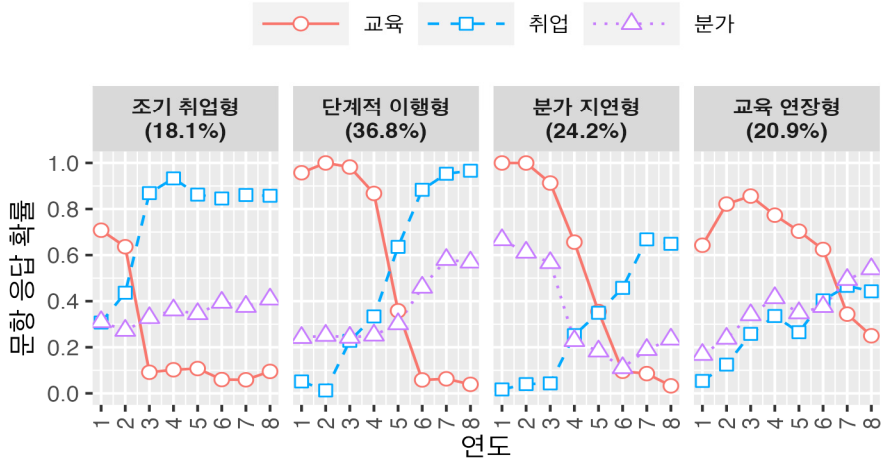
남성의 두 번째 잠재계급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추가적인 교육을 완료한 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들의 군복무 확률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100%였으며 3차 연도부터는 0%였다. 3차 연도 이후 재학 확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4차 연도에 정점인 94.5%에 도달하였다가 6차 연도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취업과 분가 확률은 2차 연도 이후 8차 연도까지 점진적으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남성 표본의 21.6%를 차지하는 두 번째 남성 잠재계급의 이름은 ‘군복무 후 교육형’이다.

남성의 세 번째 잠재계급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추가적인 교육을 받다가 군대에 다녀온 뒤 다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1차 연도에 이들의 재학과 군복무 확률은 각각 84.1%와 0%였다.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 군복무 확률은 100%로 증가하였다가 4차 연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재학 확률은 4차 연도부터 다시 증가하여 5차 연도에 정점인 83.4%를 지나서 점차 감소하였다. 취업과 분가 확률은 3차 연도 이후 점차 증가하였다. 전체 남성 표본의 가장 큰 비중인 41.6%를 차지하는 세 번째 남성 잠재계급의 이름은 ‘휴복학형(41.6%)’이다.

## 남성



## 여성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표본 수: 남성 269명, 여성 326명

그림 IV-2. 잠재계급 문항 응답 확률

남성의 마지막 네 번째 잠재계급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추가적인 교육을 모두 받은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들의 재학 확률은 1차 연도에

69.6%에서 3차 연도에 93.2%로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취업 확률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3.7%에 머물렀으나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8차 연도에 53.4%에 도달하였다. 1차 연도에서 3차 연도까지 0%에 가까웠던 군복무 확률도 그 이후 증가하였으나 5차 연도에 정점이 31.8%를 다시 감소하였다. 즉, 이 잠재계급에 속하는 남성들은 대학교육을 모두 마치고 입대하거나 군복무를 지연 또는 면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분가 확률은 1차 연도에 43.8%에서 3차 연도에 56.3%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5차 연도까지 28.9%로 감소한 뒤 8차 연도까지 46.3%로 증가하였다. 전체 남성 표본의 19.7%를 차지하는 네 번째 남성 잠재계급의 이름은 '교육 우선형'이다.

여성의 첫 번째 잠재계급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들의 교육확률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각각 70.8%와 63.6%에서 3차 연도부터 약 10% 또는 그 미만에 머물렀다. 반면에 취업확률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각각 30.7%와 43.7%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3차 연도부터 약 85% 또는 그 이상에 머물렀다. 분가 확률은 1차 연도에 31.0%에서 8차 연도에 40.8%로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전체 여성 표본의 18.1%를 차지하는 첫 번째 여성 잠재계급의 이름은 '조기 취업형'이다.

여성의 두 번째 잠재계급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4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들의 재학 확률은 1차 연도에서 4차 연도까지 약 86%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5차 연도부터 약 6% 또는 그 미만으로 떨어졌다. 취업 확률은 2차 연도에 최저치인 1.3%를 지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8차 연도에는 96.6%에 이르렀다. 분가 확률도 1차 연도에 24.2%에서 8차 연도에 56.9%로 점차 증가하였다. 전체 여성 표본의 가장 큰 비중인 36.8%를 차지하는 두 번째 여성 잠재계급의 이름은 '단계적 이행형'이다.

여성의 세 번째 잠재계급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두 번째 잠재계급인 단계적 이행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4년간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분가 확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들의 재학 확률은 1차 연도에서 3차 연도까지 약 91% 이상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8차 연도에는 3.3%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취업 확률은 1차 연도에 최저치인 1.7%에서 8차 연도에 64.9%까지 증가하였다. 분가 확률은 1차 연도에 66.6%에서 감소하여 6차 연도에 최저치인 11.1%를 지나 8차 연도에 23.5%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여성 표본의 24.2%를 차지하는 세 번째 여성 잠재계급의

이름은 ‘분가 지연형’이다.

여성의 마지막 네 번째 잠재계급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고등학교 이후 약 6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뒤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분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들의 재학 확률은 1차 연도에 64.3%에서 3차 연도에 85.6%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8차 연도에는 25.0%에 도달했다. 취업과 분가 확률은 각각 1차 연도에 5.4%와 16.8%에서 8차 연도에 44.3%와 54.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여성 표본의 20.9%를 차지하는 네 번째 여성 잠재계급의 이름은 ‘교육 연장형’이다.

앞서 논의한 [그림 IV-1]이 초기 성인기 이행의 일반적인 경향을 성별에 따라 상이함을 보여주는 반면, [그림 IV-2]은 초기 성인기 이행의 대표적인 몇 가지 패턴도 성별에 따라 매우 상이함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군복무와 추가 교육의 여부와 시기에 따라 4가지 서로 다른 패턴이 구분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추가 교육의 여부와 시기를 비롯해서 분가 여부와 시기에 따라 4가지 서로 다른 패턴이 구분되었다. 군복무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분가는 남성에 비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서만 분가의 확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분가 지연형’이 한 가지 대표적인 초기 성인기 이행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가 지연형’의 분가 확률은 이들의 최종학교 졸업과 취업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가의 사회적 의미가 성별에 따라 상당히 상이함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성인기 이행 패턴을 경험하는 집단들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과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표 IV-2>에 따르면, 본 연구에 이용된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는 성별에 따라 크게 상이하지 않다.

표 IV-2. 독립변인 기술통계

|                 | 남성    |         | 여성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가구소득            |       |         |       |         |
| 상위 30%          | 0.275 | (0.447) | 0.224 | (0.418) |
| 중위 40%          | 0.428 | (0.496) | 0.469 | (0.500) |
| 하위 30%          | 0.297 | (0.458) | 0.307 | (0.462) |
| 부모의 직업군         |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0.457 | (0.499) | 0.451 | (0.498) |
| 그 외 직업군         | 0.543 | (0.499) | 0.549 | (0.498) |
| 부모의 교육 수준       |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0.424 | (0.495) | 0.402 | (0.491) |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   | 0.576 | (0.495) | 0.598 | (0.491) |
| 거주지역            |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0.338 | (0.474) | 0.414 | (0.493) |
| 그 외 지역          | 0.662 | (0.474) | 0.586 | (0.493) |
| 고등학교 유형         |       |         |       |         |
| 인문계             | 0.851 | (0.356) | 0.856 | (0.352) |
| 그 외 유형          | 0.149 | (0.356) | 0.144 | (0.352) |
| 고등학교 성적(주관적 평가) |       |         |       |         |
| 우수              | 0.353 | (0.479) | 0.288 | (0.454) |
| 보통              | 0.368 | (0.483) | 0.393 | (0.489) |
| 미흡              | 0.279 | (0.449) | 0.319 | (0.467) |
| 표본 수            | 269   |         | 326   |         |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즉, 앞서 논의한 초기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는 <표 IV-2>에 나타난 가족배경과 교육 관련 변수들 외에 성인기 역할 이행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의 성별 차이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표 IV-3>은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가에 따른 잠재계급 소속 확률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교육적인 성과가 낮을수록

교육보다는 취업을 중시하는 잠재계급(즉, 남성의 경우 군복무 후 취업형, 여성의 경우 조기 취업형)에 소속될 확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3.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잠재계급 소속 확률

|                 | 남성                   |              |                    |                    |       |
|-----------------|----------------------|--------------|--------------------|--------------------|-------|
|                 | 군복무 후<br>취업형         | 군복무 후<br>교육형 | 휴복학형               | 교육<br>우선형          | 전체    |
| 가구소득            |                      |              |                    |                    |       |
| 상위 30%          | 0.081 <sup>***</sup> | 0.243        | 0.392              | 0.284              | 1.000 |
| 중위 40%          | 0.122 <sup>***</sup> | 0.226        | 0.496 <sup>*</sup> | 0.157              | 1.000 |
| 하위 30%(준거 집단)   | 0.325                | 0.175        | 0.325              | 0.175              | 1.000 |
| 부모의 직업군         |                      |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0.098 <sup>**</sup>  | 0.228        | 0.439              | 0.236              | 1.000 |
| 그 외 직업군(준거 집단)  | 0.233                | 0.205        | 0.397              | 0.164              | 1.000 |
| 부모의 교육 수준       |                      |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0.167                | 0.219        | 0.395              | 0.219              | 1.000 |
| 고졸 또는 이하(준거 집단) | 0.174                | 0.213        | 0.432              | 0.181              | 1.000 |
| 거주지역            |                      |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0.187                | 0.231        | 0.352              | 0.231              | 1.000 |
| 그 외 지역(준거 집단)   | 0.163                | 0.208        | 0.449              | 0.180              | 1.000 |
| 고등학교 유형         |                      |              |                    |                    |       |
| 인문계             | 0.109 <sup>***</sup> | 0.236        | 0.437              | 0.218 <sup>*</sup> | 1.000 |
| 그 외 유형(준거 집단)   | 0.525                | 0.100        | 0.300              | 0.075              | 1.000 |
| 고등학교 성적         |                      |              |                    |                    |       |
| 우수              | 0.116 <sup>*</sup>   | 0.211        | 0.432              | 0.242              | 1.000 |
| 보통              | 0.162                | 0.253        | 0.394              | 0.192              | 1.000 |
| 미흡(준거 집단)       | 0.253                | 0.173        | 0.427              | 0.147              | 1.000 |

|                 | 여성        |            |           |           |       |
|-----------------|-----------|------------|-----------|-----------|-------|
|                 | 조기<br>취업형 | 단계적<br>이행형 | 분가<br>지연형 | 교육<br>연장형 | 전체    |
| 가구소득            |           |            |           |           |       |
| 상위 30%          | 0.082**   | 0.342      | 0.260     | 0.315*    | 1.000 |
| 중위 40%          | 0.170     | 0.379      | 0.268     | 0.183     | 1.000 |
| 하위 30%(준거 집단)   | 0.270     | 0.370      | 0.190     | 0.170     | 1.000 |
| 부모의 직업군         |           |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0.116**   | 0.340      | 0.279     | 0.265*    | 1.000 |
| 그 외 직업군(준거 집단)  | 0.235     | 0.391      | 0.212     | 0.162     | 1.000 |
| 부모의 교육 수준       |           |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0.115*    | 0.382      | 0.260     | 0.244     | 1.000 |
| 고졸 또는 이하(준거 집단) | 0.226     | 0.359      | 0.231     | 0.185     | 1.000 |
| 거주지역            |           |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0.178     | 0.393      | 0.170*    | 0.259     | 1.000 |
| 그 외 지역(준거 집단)   | 0.183     | 0.351      | 0.293     | 0.173     | 1.000 |
| 고등학교 유형         |           |            |           |           |       |
| 인문계             | 0.143***  | 0.380      | 0.265*    | 0.211     | 1.000 |
| 그 외 유형(준거 집단)   | 0.404     | 0.298      | 0.106     | 0.191     | 1.000 |
| 고등학교 성적         |           |            |           |           |       |
| 우수              | 0.074***  | 0.394      | 0.223     | 0.309*    | 1.000 |
| 보통              | 0.195     | 0.375      | 0.266     | 0.164     | 1.000 |
| 미흡(준거 집단)       | 0.260     | 0.337      | 0.231     | 0.173     | 1.000 |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표본 수: 남성 269명, 여성 326명

\*\* 주) \*, \*\*, \*\*\*  $p < .05$ ,  $p < .01$ ,  $p < .001$ : (준거 집단과의 차이에 대한 양측 검정)

다음으로 다른 독립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독립요인과 잠재계층 소속확률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계수는 직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 승산비(odds ratio)를 논의에 이용하였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후 취업형 대비 다른 잠재계층에 소속될 승산비를 <표 IV-4>에, 여성의 경우 조기 취업형 대비 다른 잠재계층에 소속될 승산비를 <표 IV-5>에 제시하였다. <표 IV-4>와 <표 IV-5>의 모형1과 모형2는 각각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과 독립변수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형3은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과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IV-4. 가족배경 및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잠재계급 소속 확률의 상대적 승산비(남성)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u>군복무 후 교육형(군복무 후 취업형 대비)</u> |                 |                  |                   |
| 가구소득(준거 집단=하위 30%)             |                 |                  |                   |
| 상위 30%                         | 4.773(3.023) *  |                  | 4.373(2.982) *    |
| 중위 40%                         | 3.325(1.634) *  |                  | 3.070(1.622) *    |
| 부모의 직업군(준거 집단=그 외 직업군)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1.802(0.864)    |                  | 1.359(0.693)      |
| 부모의 교육 수준(준거 집단=고졸 또는 이하)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0.648(0.284)    |                  | 0.608(0.287)      |
| 거주지역(준거 집단=그 외 지역)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0.980(0.419)    |                  | 1.245(0.583)      |
| 고등학교 유형(준거 집단=그 외 유형)          |                 |                  |                   |
| 인문계                            |                 | 13.250(8.139)*** | 11.010(6.929) *** |
| 고등학교 성적(준거 집단=미흡)              |                 |                  |                   |
| 우수                             |                 | 3.804(2.164)*    | 4.021(2.375) *    |
| 보통                             |                 | 2.363(1.215)     | 2.359(1.233)      |
| <u>휴복학형(군복무 후 취업형 대비)</u>      |                 |                  |                   |
| 가구소득(준거 집단=하위 30%)             |                 |                  |                   |
| 상위 30%                         | 4.078(2.369) *  |                  | 3.908(2.433) *    |
| 중위 40%                         | 3.842(1.655) ** |                  | 3.701(1.718) **   |
| 부모의 직업군(준거 집단=그 외 직업군)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1.968(0.859)    |                  | 1.555(0.721)      |
| 부모의 교육 수준(준거 집단=고졸 또는 이하)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0.565(0.224)    |                  | 0.516(0.220)      |
| 거주지역(준거 집단=그 외 지역)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0.687(0.267)    |                  | 0.819(0.351)      |
| 고등학교 유형(준거 집단=그 외 유형)          |                 |                  |                   |
| 인문계                            |                 | 8.236(3.672)***  | 6.650(3.110) ***  |
| 고등학교 성적(준거 집단=미흡)              |                 |                  |                   |
| 우수                             |                 | 3.067(1.517)*    | 3.396(1.766) *    |
| 보통                             |                 | 1.494(0.667)     | 1.422(0.653)      |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u>교육 우선형(군복무 후 취업형 대비)</u> |                |                   |                   |
| 가구소득(준거 집단=하위 30%)          |                |                   |                   |
| 상위 30%                      | 4.849(3.050) * |                   | 4.195(2.867) *    |
| 중위 40%                      | 2.147(1.096)   |                   | 1.914(1.055)      |
| 부모의 직업군(준거 집단=그 외 직업군)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2.207(1.084)   |                   | 1.679(0.880)      |
| 부모의 교육 수준(준거 집단=고졸 또는 이하)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0.730(0.328)   |                   | 0.651(0.315)      |
| 거주지역(준거 집단=그 외 지역)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1.109(0.481)   |                   | 1.346(0.643)      |
| 고등학교 유형(준거 집단=그 외 유형)       |                |                   |                   |
| 인문계                         |                | 17.600(12.080)*** | 14.450(10.180)*** |
| 고등학교 성적(준거 집단=미흡)           |                |                   |                   |
| 우수                          |                | 5.243(3.034)**    | 5.306(3.189) **   |
| 보통                          |                | 2.125(1.150)      | 2.099(1.155)      |
| 표본 수                        | 269            | 269               | 269               |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준거 집단과의 차이에 대한 양측 검정)

표 IV-5. 가족배경 및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잠재계급 소속 확률의 상대적 승산비(여성)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u>단계적 이행형(조기 취업형 대비)</u> |              |     |              |
| 가구소득(준거 집단=하위 30%)        |              |     |              |
| 상위 30%                    | 2.275(1.242) |     | 2.068(1.159) |
| 중위 40%                    | 1.399(0.499) |     | 1.356(0.503) |
| 부모의 직업군(준거 집단=그 외 직업군)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1.381(0.496) |     | 1.046(0.397) |
| 부모의 교육 수준(준거 집단=고졸 또는 이하)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1.718(0.631) |     | 1.631(0.616) |
| 거주지역(준거 집단=그 외 지역)        |              |     |              |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특별시 및 광역시                 | 1.108(0.365)   |                  | 1.069(0.369)     |
| 고등학교 유형(준거 집단=그 외 유형)     |                |                  |                  |
| 인문계                       |                | 4.362(1.819) *** | 3.821(1.656) **  |
| 고등학교 성적(준거 집단=미흡)         |                |                  |                  |
| 우수                        |                | 5.052(2.554) **  | 4.840(2.484) **  |
| 보통                        |                | 1.552(0.569)     | 1.529(0.570)     |
| <u>분가 지연형(조기 취업형 대비)</u>  |                |                  |                  |
| 가구소득(준거 집단=하위 30%)        |                |                  |                  |
| 상위 30%                    | 2.924(1.710)   |                  | 2.620(1.575)     |
| 중위 40%                    | 1.892(0.766)   |                  | 1.773(0.745)     |
| 부모의 직업군(준거 집단=그 외 직업군)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2.164(0.832) * |                  | 1.583(0.639)     |
| 부모의 교육 수준(준거 집단=고졸 또는 이하)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1.648(0.649)   |                  | 1.543(0.627)     |
| 거주지역(준거 집단=그 외 지역)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0.545(0.204)   |                  | 0.513(0.199)     |
| 고등학교 유형(준거 집단=그 외 유형)     |                |                  |                  |
| 인문계                       |                | 8.309(4.590) *** | 6.880(3.936) *** |
| 고등학교 성적(준거 집단=미흡)         |                |                  |                  |
| 우수                        |                | 4.378(2.379) **  | 3.811(2.115) *   |
| 보통                        |                | 1.618(0.646)     | 1.490(0.611)     |
| <u>교육 연장형(조기 취업형 대비)</u>  |                |                  |                  |
| 가구소득(준거 집단=하위 30%)        |                |                  |                  |
| 상위 30%                    | 3.760(2.198) * |                  | 3.518(2.111) *   |
| 중위 40%                    | 1.367(0.584)   |                  | 1.329(0.587)     |
| 부모의 직업군(준거 집단=그 외 직업군)    |                |                  |                  |
| 전문직 및 관리직                 | 2.220(0.889) * |                  | 1.686(0.713)     |
| 부모의 교육 수준(준거 집단=고졸 또는 이하) |                |                  |                  |
| 대학교 졸업 또는 이상              | 1.798(0.735)   |                  | 1.683(0.709)     |
| 거주지역(준거 집단=그 외 지역)        |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1.410(0.526)   |                  | 1.417(0.554)     |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고등학교 유형(준거 집단=그 외 유형) |     |                  |                  |
| 인문계                   |     | 4.108(1.985) **  | 2.766(1.408) *   |
| 고등학교 성적(준거 집단=미흡)     |     |                  |                  |
| 우수                    |     | 7.657(4.128) *** | 6.813(3.763) *** |
| 보통                    |     | 1.319(0.572)     | 1.264(0.564)     |
| 표본 수                  | 326 | 326              | 326              |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준거 집단과의 차이에 대한 양측 검정)

〈표 IV-4〉에 나타난 남성 모형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군복무 후 취업형 보다 는 군복무 후 교육형, 휴복학형, 교육 우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그 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높은 청년이 낮은 청년보다 군복무 후 취업형이 아닌 다른 세 가지 잠재계급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의 직업과 교육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든 독립변수를 통제한 모형3에서도 가구소득,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성적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군복무 후 취업형을 제외한 다른 세 유형간의 가족배경 및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5〉에 나타난 여성 모형에 따르면, 조기 취업형 대비 단계적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은 가구소득,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에 따라 통계적으로 상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그 외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높은 청년이 낮은 청년보다 조기 취업형 대비 단계적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조기 취업형 대비 분가 지연형에 속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유형 및 성적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족배경 독립변수만 포함된 모형1에 따르면, 부모가 전문직 및 관리직 직업을 가진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조기 취업형 대비 단계적 이행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과 독립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3에서는 어떤 가족배경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끝으로 조기 취업형 대비 교육 연장형에 속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교육성과 독립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거나 부모의 직업군이 전문직 및 관리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조기 취업형 대비 교육

연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교 교육성과 변수를 통제 한 모형3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부모의 직업군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교 교육성과를 통제하며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적이 높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조기 취업형 대비 교육 연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등학교 유형 및 성적에 따른 차이는 가족배경을 통제한 모형3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조기 취업형을 제외한 다른 세 유형간의 가족배경 및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대 가구소득,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성적 등은 우리나라 청년의 초기 성인기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남성과 여성 청년 모두 가구소득이 높고, 고등학교 교육성과가 우수할수록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보다는 교육을 중시하는 초기 성인기 과정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패턴의 구체적인 양상은 의무적인 군복무 여부와 분가의 사회적 의미의 차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에게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 ○————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1. 결과 요약
- 2. 정책제언 및 시사점



## 1. 결과 요약\*

### 1)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분석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를 학교 이행과 학교-일자리 이행, 그리고 분가 및 가족 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 이행 결과를 보면, 대학 진학률은 2023년 현재 등록기준으로 72.8%로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70%가 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청년(25-34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고교 계열별 진학률을 보면, 완성교육으로 취업이 목적인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2023년 기준으로 50%를 넘어섰다. 이것은 2017년 32.8%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였다. 재수생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4년 기준으로 159,742명으로 저출생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학교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학 휴학률은 1980년 10.6%에서 2022년 24.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 추이를 보면, 2007년 대학 졸업생 중 5.2%가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2022년 4.5%로 낮아졌고 국외 대학원생 규모는 같은 기간 2,242명에서 286명으로 급감하였다.

학교-일자리 이행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중 특성화고(전 전문계고, 실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1999년 148,478명에서 2023년 15,388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대학 진학자의 증가, 그리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취업자의 비중이 해당 연령에서 처음으로 50% 이상을 보여주는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성인이행기 실태와 취업/진학 선택 분석 내용을, 오병돈 교수(뉴욕주립공과대)가 성인기 이행 요인 분석을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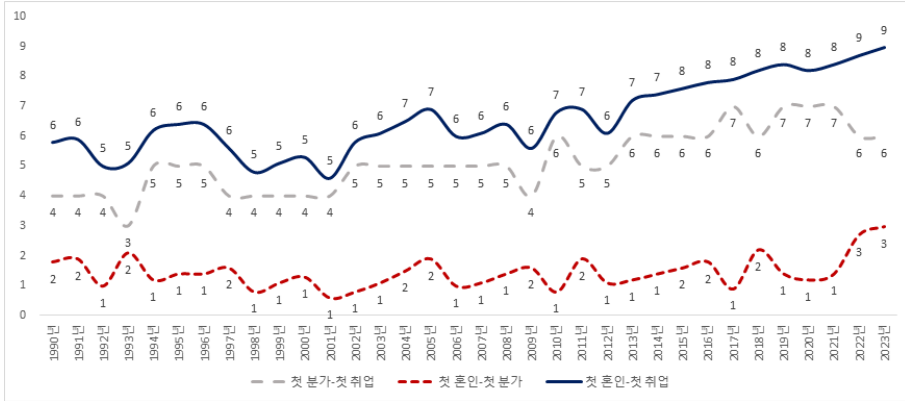
것을 기준으로 첫 취업연령을 살펴 보면, 1990년 첫 취업연령이 21세였고 여성은 20세, 남성은 22세로 나타났으나 2023년 24세로 늘었고 남성의 첫 취업연령은 25세, 여성은 23세였다. 학교 졸업 및 중퇴 후에 첫 취업소요기간은 2023년 2004년 첫 조사 후 처음으로 12개월로 늘었고 3개월 미만 조기취업 비율은 2004년 56.3%에서 2024년 47.7%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첫 취업 지연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각종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타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시험준비로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 중인 청년(15-29세)은 2006년 5월 첫 조사에서 22만 1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중 40.8%를 차지하였다. 2024년 5월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시험 준비자 중 비율이 23.2%까지 낮아졌고 13만 1천명으로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가구주가 해당 연령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첫 분가 연령을 살펴보면, 1990년 전체는 33세, 남성의 경우 26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사별이나 이혼 이후에 가구주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별도의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2023년 결과를 보면, 전체는 38세, 남성의 경우 31세로 첫 분가 연령이 늦어졌다. 20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81.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초혼연령은 1990년 남편은 27.8세, 아내는 24.8세였는데 2023년 현재 초혼연령은 남편은 34.0세, 아내는 31.5세로 늘어났다. 청년기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19세의 모의 출산율은 1993년 1,000명 당 11.9명이었는데 계속 낮아져 2023년 0.9명이 되었다. 25세의 모의 출산율은 같은 기간 178.6명에서 8.8명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30세의 모의 출산율은 113.5명에서 50.6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서는 3가지 이행기 간의 기간 차이를 연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혼인과 첫 분가간의 연령이 가장 짧았는데 1990년 이후 1-2세의 차이를 보여주다가 2022년부터 3세 차이로 조금 벌어졌다. 두 번째 이행기 간에 연령 차이가 길었던 것은 첫 분가와 첫 취업간의 거리로 1990년 4세 차이에서 2015년 이후 최대 7세 차이가 났다가 2023년 들어 6세 차이로 다소 좁혀졌다. 마지막으로 가장 거리가 멀었던 이행기는 첫 취업과 첫 혼인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5세나 6세에서 9세로 늘어났다.

성인기 이행과정의 변화와 관련하여 먼저 성인기 이행이 이전보다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증되고 있다. 두 번째로 성인기 이행기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행기 간 첫 연령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세)



출처) 변금선, 김상현, 최지원, 김기현, 이승호, 이혜림(2024)

그림 V-1. 남성의 생애 첫 연령 간 차이 변화(1990~2023)

이행기 순서와 관련하여 근대 이후 분가-취업-결혼으로 이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20대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IMF외환위기 이후 분가 시기도 늦어져 취업-분가-결혼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가와 결혼 간의 첫 연령 차이는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도 순서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 2) 고3의 취업과 진학 선택 분석

여기에서는 KYPs 2003과 KCYPs 2010, 그리고 KCYPs 2018의 중학생 패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향후 취업과 진학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07년과 2015년, 그리고 2023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취업을 위한 직업선택을 물어본 결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2007년 35.0%에서 2015년 36.4%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3년 26.7%에 그쳤다. 직업을 정하지 못한 경우는 같은 기간 각각 21.0%, 11.5%, 16.2%로 크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교육기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학미결정 상태에 있는 경우는 2007년 0.4%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1%로 증가했고 2023년 9.2%로 2007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취업과 진학에 대한 미결정 상태의 증가는 조사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진학 의사는 같은 기간 크게 감소했고 4년제 대학 진학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사표시는 2007년 59.4%에서 2015년 47.6%로 감소했으나 2023년 72.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계속교육기관인 일반계고는 물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완성교육기관인 직업계고 학생들도 대학에 절반이상이 진학하는 고학력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3개 코호트별로 분석한 취업과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은 취업이나 진학 미선택에 대한 부(-)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역시 취업이나 진학 미선택에 대한 부(-)의 효과가 있는데 2023년 코호트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과 진학을 결정하는 대신 취업할 직업을 정하지 못하고 대학진학만 결정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성별은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서 미결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다만, 이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표 V-1. 3개 코호트 취업과 진학 선택 영향 요인 분석 결과

| 변수               | 취업미결정·대학미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      | 취업미결정·대학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      | 취업결정·대학미진학<br>/취업결정·대학진학 |      |      |
|------------------|---------------------------|------|------|--------------------------|------|------|--------------------------|------|------|
|                  | 2007                      | 2017 | 2023 | 2007                     | 2017 | 2023 | 2007                     | 2017 | 2023 |
| 학업성적             | -                         | -    | -    |                          |      |      |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    | +    |                          |      | -    |
| 성별(여성=1)         |                           |      |      | +                        |      |      |                          |      | +*   |
| 자원봉사활동 경험(있음=1)  |                           |      |      | +                        |      |      | +*                       |      |      |
| 아르바이트 경험(있음=1)   |                           | +*   |      |                          |      | -    | -*                       |      |      |
| 고교계열(직업계고=1)     | +                         | +    | +    |                          |      |      | +                        | +    | +    |
| 고교소재지(서울=1)      |                           |      |      |                          |      |      |                          | +    |      |
| 아버지 교육(대졸 이상=1)  |                           |      |      |                          |      |      |                          |      |      |
| 어머니 교육(대졸 이상=1)  |                           |      |      |                          |      |      |                          |      |      |
| 아버지 직업(관리/전문직=1) |                           |      |      |                          |      |      |                          |      |      |
| 가구소득             | -*                        | -    | -*   |                          |      |      |                          | -    | -*   |
| 절편               |                           |      |      |                          |      |      |                          |      |      |

주) +와 -의 효과의 방향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p<0.5)을 미치는 경우가 표기하였음. \* 표기가 된 것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

고교 시기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는 부분적으로 확대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취업과 진학을 정하지 못하는 데 정(+)의 효과가 있는데 반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부(-)의 효과가 있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2015년에 10% 유의수준에서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교계열은 직업계고를 기준범주로 했을 때 학업성적과 더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관되게 미결정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계고는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완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직업미결정에도 정(+)의 효과가 발견되어 직업계고 학생들 역시 취업을 위한 직업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배경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가구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구소득은 10%의 유의수준을 포함하여 취업과 진학 미결정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이나 진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성인기 이행 영향요인 분석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KCYPS 2010은 중1 학생을 14년간 추적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4장의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대표적인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교육, 취업, 분가, 군복무 여부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8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 청년에게서 각각 4가지 대표적인 초기 성인기 패턴을 식별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가족배경(가구소득, 부모 직업, 부모 교육)과 교육성과(고등학교 유형 및 성적)가 이러한 패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규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의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성별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최종학교 졸업과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다. 이러한 성별 차이의 상당 부분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즉, 남성에게 부과한 군복무의 의무는 고등학교 이후 남성 청년의 교육과 취업을 지연시킨다. 군복무 여부와 시기에 따라 남성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패턴은 크게 4가지(군복무 후 취업형,

군복무 후 교육형, 휴복학형, 교육 우선형)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군복무의 의무가 초기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군복무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년의 분가 시기는 남성에 비해 늦은 편이다. 분가는 교육과 더불어 여성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패턴을 4가지(조기 취업형, 단계적 이행형, 분가 지연형, 교육 연장형)로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성별에 따른 분가 시기의 차이는 일정 부분 사회문화적인 요인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문화의 영향으로 분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여성 자녀보다는 남성 자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구조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초기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가구소득과 고등학교 교육성적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우선하는 초기 성인기 패턴(남성의 군복무 후 취업형과 여성의 조기 취업형)보다는 교육을 중시하는 패턴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은 자녀의 교육성과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유형과 성적의 통계적 유의미도는 가족배경 요인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그 외 고등학교 졸업생 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미흡한 학생보다 취업보다는 교육을 중시하는 초기 성인기 패턴을 이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성과에 따른 초기 성인기 이행의 차이는 대학교 진학 여부와 진학한 대학교의 유형(2년제 또는 4년제)의 차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즉, 고등학교 시기의 교육 불평등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초기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분가 시기와 관련된 성별과 가족배경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of gender and class)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성의 분가 시기는 의무적인 군복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분가 시기보다 빠르다. 남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후 추가적인 교육을 완료함에 따라 취업과 분가의 확률이 함께 증가한다. 하지만 남성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교육, 취업, 분가의 관계가 여성에게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교육 연장형을 제외하면, 분가 확률이 취업 확률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단계적 이행형의 분가 확률은 취업 확률의 증가에 크게 못 미친다. 조기 취업형의 분가

확률은 취업 확률이 증가함에도 거의 증가하지 않으며, 분가 지연형의 분가 확률은 교육 완료와 취업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감소한다.

여성 청년의 분가 지연은 성별에 따른 사회 규범의 차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조기 취업형과 분가 지연형은 분가 시기가 비교적 늦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들의 가구소득은 상이하다. 가구소득이 높은 여성 청년이 조기 취업형에 비해 분가 지연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청년들 사이에서 분가 지연의 실질적 의미가 부모의 계급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부모의 계급이 높은 여성 청년에게 분가 지연은 부유한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경제적 지원의 확장을 의미하는 반면, 부모의 계급이 낮은 여성 청년에게 분가 지연은 경제적 능력이 분가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하거나 가난한 부모를 초기 성인기부터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의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가 초기 성인기의 여러 가지 역할 이행 중 하나에만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교육, 취업, 분가를 비롯하여 군복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역할 이행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표적인 초기 성인기 이행 패턴을 규명하였다는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이행 패턴의 차이가 성별, 가구소득, 고등학교 교육성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이행 패턴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연관 관계에 대한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적인 질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1)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실태를 요약해 보면, 이행 시점이 점차 지연되고 있고 학교 졸업, 취업, 분가와 같은 이행기 간에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성인기 이행 전반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단계적으로 이행 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단계별로 이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진학 단계에서 고학력화가 우리사회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

---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성인이행기 실태와 취업/진학 선택의 정책적 시사점과 조사 관련 시사점을, 오병돈 교수(뉴욕주립공과대)가 성인이 이행 요인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을 작성하였음.

으나 고졸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고졸 기능 인력의 부족과 대졸 인력의 과잉 상태가 지속된다면 성인이 이행 지연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업계고는 완성교육기관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학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취업자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직업계고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이유 중 하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직업 계고 현장실습 운영 제도를 개선해 현장실습생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졸 취업 정보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졸만job)을 운영해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실습 수당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실습생에게는 월 60만원, 기업현장교사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고질 적인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향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직업계고가 충분히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지정해 새로운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 관계부처 합동(2024a: 503)

그림 V-2. 직업교육 혁신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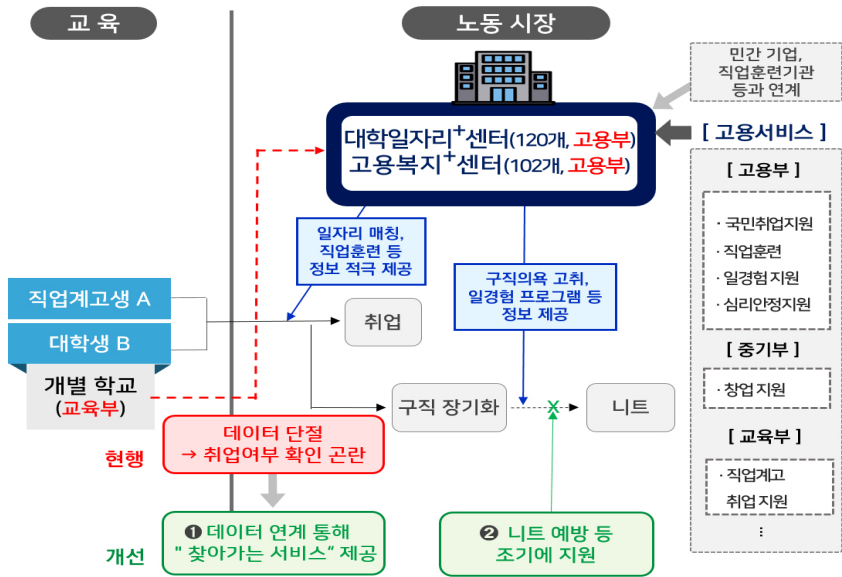
이 중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대학과 지역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 광역지자체 중 부산, 대구, 인천, 기초지자체 중 천안, 사전, 진주, 고성 등이 선정되었고 2022년 광주, 울산을 비롯해 창원, 김해가, 2023년 전북과 당진 등 12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2024년 2개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a, 2024).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나 일반고 직업반에 비해서 취업률이 높고 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이스터고는 2011년 처음 등장해 20개교로 출발하였고 2013년까지 34개교로 늘어난 후 매년 2, 3개 학교가 추가로 지정되어 2023년 현재 50개교에 이르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에서 2025년까지 64개의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북형 마이스터고', '광주형 마이스터고'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이어서 대학 휴학 및 졸업유예와 졸업 후 취업 기간의 장기화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와 독일과 일본의 조기개입을 통한 문제 최소화를 통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보장제는 졸업 후 5개월 이내에 교육도, 일도,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1년 간 진학이나 취업을 비롯해 직업훈련 제공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인데 한 번의 연계가 실패해도 반복해서 1년 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고교 단계에서 이원화체계(dual system)로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졸업 전에 취업이 이루어지고 대학 단계에서 모든 대학에서 노동사회부 공무원을 파견해 졸업 학년 때 취업연계를 도와 졸업 전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인 학교-기업 실적관계와 학교 방문 채용(campus recruiting)을 통해 졸업 전에 취업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졸업 학년에 취직내정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졸업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평균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개월 이내에 조기 취업 비율도 갈수록 낮아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1단계로 단절되어 있는 학교 정보와 노동시장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보 연계 이후 졸업 전이나 졸업 직후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개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 관계부처 합동(2024b)

그림 V-3.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현재 추진 중인 조기개입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재학생 고용서비스 지원사업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성장프로젝트 등이 있다. 재학생 고용서비스 지원사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 단계에서 각종 교과 및 비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궁극적으로 졸업 전이나 직후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영역을 확장하여 2024년부터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반 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아직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졸업 직후에 초점을 맞춤 청년보장제와는 달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4세 청년을 지원하는데 구직단념청년에게 자신감 회복 및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 중이다.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졸업 직후까지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형 청년보장제

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석사와 학사 학위 과정인 대학원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외 대학원 진학자가 지난 10년간 1/10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고급 인재양성에 대한 특단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023년 31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27조 2,000억 원으로 삭감되어 큰 우려를 낳았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3).

정부에서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a, 2024). 저출생 문제로 2050년 이공계 석사와 박사 과정생 수는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 대책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책 중에서 고교 단계의 마이스터고 관련 내용과 대학원 단계 이공계 등록금 및 생활장려금 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마이스터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산업 마이스터고 지정을 2027년까지 현재 57개교에서 65개교로 확대하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교육과 실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전지원금을 각 학교별로 5억 원씩 5개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a: 11).



주) 관계부처 합동(2024a)

그림 V-4.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이공계 등록금 및 생활장려금은 기존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과 BK21사업의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장학·장려금을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STIPEND)과 이공계 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은 학생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최저 지급액을 보장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월 80만원, 박사과정의 경우 월 1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공계 석사 특화 장학금은 이공계 석사 학생에게 연간 1,000명 대상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역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대학원 진학과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대학원 진학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이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고3의 취업과 진학 선택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3개 코호트별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앞선 성인기 이행 실태와 마찬가지로 진학에 있어서 4년제 대학교 중심의 수렴 현상이 두드러져 대학원 진학이나 고졸 취업이 위축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앞서 제시하기 하였듯이 현장실습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과 직업계고의 위상을 높이고 고졸 취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학원 진학을 통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취업과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자아존중감은 취업이나 진학 미선택에 대한 부(-)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심을 키울 때 향상된다. 근본적으로 입시위기의 경쟁 교육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이며 현재의 교육과정 속에서도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2024년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4). 우선 학교에서 놀봄학교, 방과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인성교육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인성연구학교를 신설해 2024년부터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 학생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교육부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학생 인성함양 리더십 새싹 캠프를 신설하였다. 이밖에 이 시행계획에는 학교와 교원의 인성교육 역할을 높이는 방안과 인성교육 성과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두 번째로 고교계열에 따른 결과와 관련하여 직업계고에서 대학 미진학 가능성이 높게 추정된 것과는 달리 직업미결정 역시 높게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직업계고는 완성교육기관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과 운영이 경직적이고 직업계고-일반계고는 물론 전공간의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업계고에 입학한 후 미래에 대한 진로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뒷받침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면 직업미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교 입장에서 전공을 바꾸거나 전학을 가는 것은 학사 운영에 있어서 번거로운 부분이나 학생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해 보인다.

동시에 직업계고 내에서도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분절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진로교육의 위상도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에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교육부만의 방안으로 축소되었고 단독 행정부서였던 진로교육과가 기초학력진로교육과로 바뀌었다. 직업교육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에서, 진로교육은 책임교육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상호연계 및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고교단계에서 취업과 진학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3) 성인기 이행 영향요인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KCYPS 2010를 이용하여 성인기 이행의 대표적인 패턴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제4장의 연구는 성별, 가족배경, 고등학교 교육성과를 고려한 맞춤형 초기 성인기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남성의 초기 성인기 이행 패턴은 군복무 후 취업형, 군복무 후 교육형, 휴복학형, 교육 우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의 초기 성인기 이행의 패턴은 조기 취업형, 단계적 이행형, 분가 지연형, 교육 연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군복무 후 취업형

남성과 조기 취업형 여성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군복무 후 취업형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군복무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적인 교육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조기 취업형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2년 이내의 추가 교육만을 받은 후 또는 추가 교육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군복무 후 취업형 남성과 조기 취업형 여성은 취업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가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충분한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복무 후 취업형 남성과 조기 취업형 여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분가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두 유형에 속한 남성과 여성의 가구소득은 다른 유형에 속한 남성과 여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성적이 높은 청년 남성과 여성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군복무 후 취업형과 조기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초중고의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은 초기 성인이 이행의 차이를 줄이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교육성과를 통제하여도 가구소득이 초기 성인이 이행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출신 청년 남성과 여성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대학교육 및 성인이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군복무 후 취업형 남성과 조기 취업형 여성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여성의 분가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군복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분가 시기는 남성보다 늦은 편이다. 조기 취업형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으며, 취업 확률이 증가하여도 분가 확률이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분가 지연형 여성은 가구소득이 다른 여성에 비해 낮지 않지만, 취업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분가 확률이 오히려 감소한다. 조기 취업형 여성과 분가 지연형 여성의 분가 지연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부장제적인 사회 규범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그 매커니즘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청년 여성의 분가 지연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은 이들의 결혼 시기 지연과 저출산을 유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분가 지연을 야기하는 요인과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4) 성인기 이행 조사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KYPs 2003과 KCYPs 2010, 그리고 KCYPs 2018을 활용해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KCYPs 2010은 2016년까지 7년간 이루어진 본조사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이루어진 유지조사 자료를 병합해 26세까지 성인기 이행 과정을 아동·청소년기에 추적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성인기 이행 조사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27세 이후 KCYPs 2010의 중1패널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20대 후반까지 추적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KCYPs 2010 중1패널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패널조사를 수행하는 신규 과제(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를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신규 과제는 2025년 일반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4년 12월에 실시되는 유지조사에서 향후 패널 참여에 대한 의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 본조사 문항 개발에 앞서 2024년 12월에 실시되는 KCYPs 2010의 중1패널에 대한 유지조사는 간략하게 온라인조사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이행 시점을 식별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은 학교 입학 시점과 졸업 시점, 재수생 여부와 기간, 휴학 여부와 기간, 졸업 후 취업소요기간과 취업 시점, 분가 여부와 시점, 그리고 결혼 여부와 시점 등이다. 졸업 후 취업소요기간과 취업 시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문항을 비교 차원에서 그대로 가져왔으며 추가 문항에 대한 부분은 부록에 수록된 설문지에 표기하였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순희 (2016).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5-29.
- 강영배, 김기현(2004). 왜 장래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가: 고등학생들의 직업미결정성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4(3), 1-20.
- 고원식, 김대일 (2019).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청년층의 독립 선택. **한국인구학**, 42(2), 51-82.
- 교육부 (2024).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 (2024a). **세상을 바꾸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인재양성전략회의.
- 관계부처 합동 (2024b).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 김경주, 송병국(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91-115.
- 김기현, 방하남 (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학**, 39(5), 119-151.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란, 장혜경, 이운석 (2018).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영, 이현정 (2020). 청년의 독립주거 마련과 거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1017-1034.
- 김창환 (2022).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원 진학 확률의 성별 격차. **한국사회학**,

- 56(1), 151-201.
-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지역사회연구**, 20(2), 91-128.
- 노민지 (2022).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주택시장 환경이 청년 독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30(1), 103-130.
- 방하남, 김기현 (2002).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박수익(2010). 교육기대의 변화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2), 101-128.
- 백혜원 (1993). **여대생의 심리적 특성 비교 : 자기 신체평가, 자기중심,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금선, 김상현, 최지원, 김기현, 이승호, 이혜림 (2024).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위험: 청년기와 고령기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여운경(2011).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포부 변화 추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직업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4(4): 21-39.
-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 · 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흥준, 김기현, 신인철, 오병돈(2013). 청소년의 직업포부와 희망직업: 대학전공 선택과의 관련성 분석. **직업교육연구**, 32(6), 91-110.
- 이상직 (2022). 한국 청년의 성인기 역할 구조 변화, 1998-2018: 젠더와 계층 차이. **한국인구학**, 45(1), 33-72.
- 이영광, 양인준, 이승엽(2019).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01-125, 2019.
- 이윤석 (2011).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3), 1-30.
-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2012).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4): 25-43.

- 이지혜 (2023).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이행 유형의 이질성 변화. **인문사회**21, 14(3), 1445-1460.
- 이진구, 이기학(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 진로 탐색 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5), 83-105.
- 이혜란, 이지은, 류신혜(2024). 핀란드, 미국, 한국 학생의 기대교육포부 수준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부모의 SES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4(1), 67-94.
- 이희정 (2019).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유형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인구학**, 42(4), 27-63.
-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연구**, 1(1):172-177.
- 차종천, 오병돈 (2012). 교육열망과 학습참여가 학업성취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4), 417-441.

- Alexander, K.L., & Cook, M. (1979). The motivational relevance of educational plans: Questioning the conventional wisdo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2(3), 202-21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Buchmann, M. C., & Kriesi, 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 Hogan, D. P., & Astone, N. M.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 109-130.
- Gati, I., Krausz, M.(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99-113.
- Gilmore, D. D. (1990). *Manhood in the making: Cultural concepts of masculinity*. Yale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agenaars, J. A., & McCutcheon, A. L. (Eds.). (2002).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J., & Wallace, C. D.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an exploration of young people, independence and domestic life*. Open University Press.
- Juárez, F., & Gayet, C. (2014). Transitions to adulthood in developing countr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0, 521-538.
- Lanza, S. T., & Collins, L. M. (2006). A mixture model of discontinuous development in heavy drinking from ages 18 to 30: The role of college enroll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7(4), 552-561.
- Lanza, S. T., Collins, L. M., Lemmon, D. R., & Schafer, J. L. (2007). PROC LCA: A SAS procedure for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671-694.
- McCarthy, D. E., Ebssa, L., Witkiewitz, K., & Shiffman, S. (2016). Repeated measures latent class analysis of daily smoking in three smoking cessation studi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65, 132-142.
- Nilsson, B. (2019). The school-to-work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5(5), 745-764.
- Morgan, S. L. (1989). Adolescent educational expectations: Rationlized, fantasized, or both? *Rationality and Society*, 10(2), 131-162.
- Oh, B., & Kim, C. (2023). Changing Undergraduate Funding Mix and Graduate Degree Attain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94(5), 664-689.
- Osgood, D. W., Foster, E. M., & Courtney, M. E. (2010).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9-229.
- Patrick, M. E., Terry-McElrath, Y. M., Schulenberg, J. E., & Bray, B. C. (2017). Patterns of high-intensity drinking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 repeated measures latent class analysis. *Addictive behaviors*, 74, 134-13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P. (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34-92.
- Settersten Jr, R. A. (2007). The new landscape of adult life: Road maps, signposts, and speed line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4(3-4), 239-252.
- Sewell, W. H. & R. M. Hauser(1980).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In A. C. Kerckhoff(ed.),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Vol. 1, Greenwich, Conn.: JAI Press, 59-99.
- Sikora, J., and L. J. Saha(2013). Corrosive inequality? Structural determinants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ect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Comparative Perspectives*, 8(3), 57-78.
- Shu, X., and M. M. Marini(1998). Gender-related change in occupational aspir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43-67.
- Staff, J., & Mortimer, J. T. (2008). Social class background and the school-to-work transi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8(119), 55-69.
- Super, D.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부 록

-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2024) 설문지(안)



## 부 록

###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2024) 설문지(안)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2024년) 설문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제7차(2024년) 유지조사 설문지 (웹조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Gallup 한국갤럽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패널조사 기억하시죠? 매년 이맘때쯤 연락을 드리고 조사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간단히 몇 가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조사는 5분 내외 소요되며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의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하는 국가적인 연구 사업인만큼 올해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http://www.nypi.re.kr)  
데이터 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http://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188  
E-mail : [kcyps2018@nypi.re.kr](mailto:kcyps2018@nypi.re.kr)

조  
사  
대  
행  
기  
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 [www.gallup.co.kr](http://www.gallup.co.kr)  
TEL : 010-3509-0914 (패널전용 휴대전화)  
카카오톡채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팀  
E-mail : [youthpanel@outlook.com](mailto:youthpanel@outlook.com)

## I. 조사 참여 동의

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가 얻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응답한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수립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응답 사례로 5천원의 상품권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나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이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 실시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조사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II.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10.19., 법률 제14765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받은 목적 외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궐립조사연구소(조사업체)에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통계법 제33조, 34조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위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조사 진행 및 자료 신뢰성 검토를 위한 연락, 참여자 본인 여부 확인, 답례품 발송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조사 참여자의 이름, 휴대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3. 수집 방법 : 조사 참여자의 응답을 통해 수집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 1] 귀하께서는 '○○○님'(조사대상 패널 이름)과 어떤 관계입니까?

1. 본인
2.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 문4~문6, 문7, 문7-1 문16, 문19  
응답제외
3. 기타(형제자매, 비혈연 등) ☞ 조사종료

[문 2]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응답)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

[문 3]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부모님(또는 두 분 중의 한 분)과 함께 살고 있다 ☞ 문 4
2.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 ☞ 문 3-1
3. 부모님(양친 모두)이 안 계시다 ☞ 문 3-1

[문 3-1] 언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_\_\_\_\_년 \_\_\_\_\_월 부터

[문 4]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만족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 5. 매우 만족한다     |             |

[문 5] 귀하가 보냈던 청소년기는 전반적으로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2.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 5. 매우 만족스러웠다    |                 |

[문 6]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

- |              |               |
|--------------|---------------|
| 1. 재산·경제력    | 6. 종교생활       |
| 2. 화목한 가정    | 7. 직업·직장      |
| 3. 자아성취      | 8. 연인(이성관계 등) |
| 4. 건강        | 9. 친구·대인관계    |
| 5. 감사·긍정적 태도 | 10. 꿈·목표의식    |

[문 7]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만족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 5. 매우 만족한다     |             |

[문 7-1] 다음은 귀하의 현재 삶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0점부터 10점 중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 문항 내용                                           | 응답                |   |   |   |    |   |   |   |            |   |    |  |
|-------------------------------------------------|-------------------|---|---|---|----|---|---|---|------------|---|----|--|
|                                                 | 전혀<br>행복하지<br>않았다 |   |   |   | 보통 |   |   |   | 매우<br>행복했다 |   |    |  |
| 1.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전혀<br>걱정하지<br>않았다 |   |   |   | 보통 |   |   |   | 매우<br>걱정했다 |   |    |  |
| 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전혀<br>우울하지<br>않았다 |   |   |   | 보통 |   |   |   | 매우<br>우울했다 |   |    |  |
| 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전혀<br>만족하지<br>않는다 |   |   |   | 보통 |   |   |   | 매우<br>만족한다 |   |    |  |
| 4.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전혀<br>가치있지<br>않았다 |   |   |   | 보통 |   |   |   | 매우<br>가치있다 |   |    |  |
| 5.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문 8] [남자만 응답] 귀하의 병역관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미필) ☞ 문 9
2. 현재 군 복무 중이다(현역) ☞ 문 8-1
3. 병역을 마쳤다 ☞ 문 8-1
4. 병역 면제자이다 ☞ 문 9

[문 8-1] 언제 입대해서 언제 전역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에서 ① \_\_\_\_\_년 \_\_\_\_\_월까지

② 현재 복무 중

[문 9] **지난 1년 동안(2023년 12월 ~ 현재)** 귀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서 “직장”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무 또는 직업활동을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1.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했다
2. 대학(또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3. 대학(또는 대학원)을 중퇴했다
4. 처음으로 직장에 취업했다
5. 직장을 옮겼다(이직/전업)
6. 직장을 그만 두었다(현재 무직)

[남자만 응답] 7. 군에 입대했다

[남자만 응답] 8. 군에서 제대했다

7. 대학 휴학/직장 휴직
8. 지난 1년간 변화 없음
9. 결혼했다
10. 이혼했다
11. 자녀를 키우고 있다

[문 10]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에 진학하셨습니다? 대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셨습니까?

※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에 2번 이상 진학하셨다면, 가장 최근에 진학하신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니오 → 문 12
2. 예, 진학 후 졸업하였다 ( 입학: \_\_\_\_년 \_\_\_\_월, 졸업: \_\_\_\_년 \_\_\_\_월 )
3. 예, 현재 재학 중이다 ( 입학: \_\_\_\_년 \_\_\_\_월에서 현재까지(현재 휴학 중 포함) )
4. 예, 진학하였으나 중퇴하였다 ( 입학: \_\_\_\_년 \_\_\_\_월, 중퇴: \_\_\_\_년 \_\_\_\_월 )

[문 11]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 중 휴학을 하셨습니다? 휴학을 하셨다면 몇 번 하셨습니까?

※ 남성의 경우 군휴학도 휴학에 포함됩니다.

1. 아니오 → 문 12
2. 예(\_\_\_\_회)

[문 12] 대학원에 진학을 하셨습니까?

1. 아니오 → 문 13
2. 예, 진학 후 졸업하였다 ( 입학: \_\_\_\_년 \_\_\_\_월, 졸업: \_\_\_\_년 \_\_\_\_월 )
3. 예, 현재 재학 중이다 ( 입학: \_\_\_\_년 \_\_\_\_월에서 현재까지(현재 휴학 중 포함) )
4. 예, 진학하였으나 수료하였다 ( 입학: \_\_\_\_년 \_\_\_\_월, 수료: \_\_\_\_년 \_\_\_\_월 )

[문 13] 귀하는 졸업/중퇴/수료 후 취업을 지난 주 일자리(직장)를 포함하여 모두 몇 번 취업을 하셨습니까? 취업하신 적이 있다면, 처음으로 취업을 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 여기서 “취업”은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1. 아니오, 졸업/중퇴/수료 후 취업을 한 적이 없다 ☞ 문 13
2. 한 번(첫 취업은 \_\_\_\_년 \_\_\_\_월)
3. 두 번
4. 세 번
5. 네 번 이상

[문 14] 현재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여기서 “일”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직장 근무 또는 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 [A 대학(원)생 조사문형] 응답
2.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  
(주된 신분은 학생) ☞ [A 대학(원)생 조사문형]
3.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 [B 취업자 조사문형] 모두 응답  
(주된 신분은 직장인)
4.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 ☞ [B 취업자 조사문형] 응답
5.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 ☞ [C 무직자 조사문형] 응답

## A 대학(원)생 조사문항

[문 15] 재학 중인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18. 해외 |

[문 16] 재학 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1. 2년제 전문대학 | 2. 3년제 전문대학  |
| 3. 4년제 대학교  | 4. 5~6년제 대학교 |
| 5. 대학원      |              |

[문 17] 현재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만족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 5. 매우 만족한다     |             |

[문 18] 귀하의 전공(또는 학과, 계열 등)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전공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전공 선택)

| 전공 계열 구분  | 세부 전공                                                                                                                                                                                                      |
|-----------|------------------------------------------------------------------------------------------------------------------------------------------------------------------------------------------------------------|
| 1. 인문계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학,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기타 아시아어문학, 영미어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프랑스어문학, 기타유럽어문학, 교양어문학</li> <li>문헌정보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윤리학, 교육인문학</li> </ul> |
| 2. 경제경영계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교양경영학</li> </ul>                                                                                                              |

| 전공 계열 구분    | 세부 전공                                                                                                                                                                                                                                     |
|-------------|-------------------------------------------------------------------------------------------------------------------------------------------------------------------------------------------------------------------------------------------|
| 3. 법률계열     | • 법학                                                                                                                                                                                                                                      |
| 4. 사회과학계열   | •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
| 5. 교육계열     | • 교육학<br>• 유아교육학<br>• 특수교육학<br>• 초등교육학<br>• 언어교육, 인문교육,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                                                                                                                                                          |
| 6. 공학계열     | •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br>• 토목공학, 도시공학<br>•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br>•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br>•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br>• 광학공학, 에너지공학<br>•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br>•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br>• 산업공학<br>• 화학공학<br>•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
| 7. 자연계열     | •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br>•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br>•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br>•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                                                                                                     |
| 8. 의료계열     | • 의학, 치의학, 한의학                                                                                                                                                                                                                            |
| 9. 간호계열     | • 간호학                                                                                                                                                                                                                                     |
| 10. 약학계열    | • 약학                                                                                                                                                                                                                                      |
| 11. 치료보건계열  | •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
| 12. 디자인계열   | • 디자인 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
| 13. 응용예술계열  | •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
| 14. 무용·체육계열 | • 무용, 체육                                                                                                                                                                                                                                  |
| 15. 미술·조형계열 | •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
| 16. 연극영화계열  | • 연극영화                                                                                                                                                                                                                                    |
| 17. 음악계열    | •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
| 18. 자유전공    |                                                                                                                                                                                                                                           |

## B 취업자 조사문항

[문 19]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직업)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18. 해외 |

[문 20] 현재 자신의 직장(직업)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만족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 5. 매우 만족한다     |             |

[문 21] 현재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직종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 선택)

| 직종 구분           | 세부 직종                                                                                                                        |
|-----------------|------------------------------------------------------------------------------------------------------------------------------|
| 1. 관리자          |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센터 관리직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 3. 사무종사자        |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 4. 서비스 종사자      |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 5. 판매 종사자       |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

| 직종 구분                  | 세부 직종                                                                                                                                                                                                     |
|------------------------|-----------------------------------------------------------------------------------------------------------------------------------------------------------------------------------------------------------|
| 7. 기능원 및 관련<br>기능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li> </ul>             |
| 8. 장치·기계조작<br>및 조립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li> </ul> |
| 9. 단순노무<br>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li> </ul>                                                      |
| 10. 군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인</li> </ul>                                                                                                                                                      |

[문 22] 현재 직업(직장)에서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 ※ **상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 ※ **임시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 ※ **일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근로자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직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 **무급가족 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 |                 |                 |
|-----------------|-----------------|
| 1. 상용근로자        | 2. 임시근로자        |
| 3. 일용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 종사자     |

## C 무직자 조사문항

[문 23] 현재 대학 진학 또는 취업/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2. 취업/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문 23-1](1, 2번 응답자) 앞으로 1년 이내에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낮다  | 2. 낮은 편이다 |
| 3. 높은 편이다 | 4. 매우 높다  |

[문 23-2](3번 응답자) 현재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건강상의 문제로
2. 집안사정 때문에(가사, 육아, 병간호 등)
3. 병역문제 때문에
4. 공부나 일을 하기 싫어서
5. 현재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취미활동, 여행 등)
6. 진학이나 취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7.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 A b s t r a c t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d the current situation among young adults in Korea, where the pathways and patterns of this transition are undergoing change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irst, an examination of the actual state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revealed that this transition is gradually being delayed compared to the past, and the age gap between different transitional milestones (employment, independence, marriage) is widening. In terms of the sequence of transitions, independence, employment, and marriage have historically followed one another since modern times, but in Korea, many young adults still live with their parents in their 20s.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the timing of independence has also been delayed, resulting in the sequence of employment, moving out, and then marriage.

Next, a review of employment and higher education choices at the high school senior stage shows that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nswered "I have a specific career in mind" increased slightly from 35.0% in 2007 to 36.4% in 2015 but dropped to 26.7% in 2023.

Regarding educational expectations, the intention to enroll in a four-year university decreased from 59.4% in 2007 to 47.6% in 2017 but rose sharply to 72.3% in 2023.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and higher education choices across three cohorts showed that academic performance and self-esteem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decision not to choose either employment or further education. For women, the likelihood of being in the undecided group was partially higher compared to men. When using vocational high schools as the reference category for school tracks, academic performance consistently had a positive effect on indecision. Among family background factors, household incom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indecision about employment and higher education at a 10% significance level.

Lastly,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which tracked students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for 14 years, to analyze the representative patterns of young adults' early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the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ing them. For men, the patterns of transition to adulthood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employment after military service, education after military service, taking breaks from school, and education-first. For women, the pattern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s well: early employment, stepwise transition, delayed independence, and extended educati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howed that higher household income increased the likelihood of

both men and women following education-focused patterns rather than early employment patterns (employment after military service for men, early employment for women) after high school. The parents'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ntrolling for the children's educational outcomes. Intersectionality of gender and class was also found: for young women from higher-class families, delayed moving out may indicate extended socioeconomic support from wealthy parents, while for those from lower-class families, delayed moving out may reflect insufficient economic capacity to move out or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ir financially struggling parents early in adulthoo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offers policy suggestions.

**Keywords:** youth, transition to adulthood, graduation, employment, independence, marriage.

##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                                                                                  |
|----------------|----------------------------------------------------------------------------------|
| 연구보고24-기본01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br>/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
| 연구보고24-기본02    |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br>/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
| 연구보고24-기본03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br>/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
| 연구보고24-기본04    |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br>/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
| 연구보고24-기본05    |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br>/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
| 연구보고24-기본06    |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br>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
| 연구보고24-기본07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br>/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
| 연구보고24-일반01    |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br>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
| 연구보고24-일반01-01 |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br>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
| 연구보고24-일반05    |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br>/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
| 연구보고24-일반05-01 |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br>/ 김기현·오병돈                                       |
| 연구보고24-일반06    |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br>/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
| 연구보고24-일반06-01 |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br>/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

## 협동연구과제

|                                                     |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br>(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br>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br>(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br>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br>(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br>/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br>(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br>연구 I : 사이버도박 / 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

## 수 시 과 제

|             |                                                                        |
|-------------|------------------------------------------------------------------------|
| 연구보고24-수시01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
| 연구보고24-수시02 |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br>/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
| 연구보고24-수시03 |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
| 연구보고24-수시04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

##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                                                              |
|-----------------|--------------------------------------------------------------|
| 연구보고24-연적금01    |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br>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
| 연구보고24-연적금01-01 |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br>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
| 연구보고24-연적금02    |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br>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

## 수탁과제

### 〈 일 반 〉

|                |                                                                         |
|----------------|-------------------------------------------------------------------------|
| 연구보고24-수탁01    |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br>/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본호·이자경·서지형              |
| 연구보고24-수탁02    |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
| 연구보고24-수탁03    |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br>/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
| 연구보고24-수탁03-01 |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br>/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
| 연구보고24-수탁03-02 |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br>/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
| 연구보고24-수탁04    |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br>/ 이지연·하형석·박지수                   |
| 연구보고24-수탁05    |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br>/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
| 연구보고24-수탁06    |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                                        |
| 연구보고24-수탁07    |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 연구보고24-수탁08    |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br>/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
| 연구보고24-수탁09    |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br>/ 최용환·이창호·임지영                            |
| 연구보고24-수탁10    |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br>평가/ 최용환 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
| 연구보고24-수탁11    |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br>/ 최용환·임지영·이경아                     |
| 연구보고24-수탁12    |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
| 연구보고24-수탁13    |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br>/ 황세영·유민상·남화성                           |
| 연구보고24-수탁14    |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
| 연구보고24-수탁15    |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br>/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
| 연구보고24-수탁15-01 |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br>/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
| 연구보고24-수탁16    |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br>/ 박지수·이지연                              |
| 연구보고24-수탁17    |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br>/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

|             |                                                                          |
|-------------|--------------------------------------------------------------------------|
| 연구보고24-수탁18 |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br>/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
| 연구보고24-수탁19 |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br>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
| 연구보고24-수탁20 |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br>/ 서정아·장여옥                                |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4-학폭01 |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br>/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 연구보고24-학폭02 |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br>/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
| 연구보고24-학폭03 |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br>/ 모상현·전원지·문은솔          |
| 연구보고24-학폭04 |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
| 연구보고24-학폭05 |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
| 연구보고24-학폭06 |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br>/ 모상현·최지윤               |
| 연구보고24-학폭07 |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br>/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 연구보고24-학폭08 |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br>/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 연구보고24-학폭09 |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br>/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 연구보고24-학폭10 |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
|-------------|-------------------------------------------------------|
| 연구보고24-대안01 |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 황세영                                 |
| 연구보고24-대안02 |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
| 연구보고24-대안03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br>/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                                                                                             |
|--------------|---------------------------------------------------------------------------------------------|
| 연구보고24-위센터01 |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br>/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br>문세진·나예인·이유진 |
|--------------|---------------------------------------------------------------------------------------------|

## 자 료 집

### 〈 세 미 나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 워 크 숍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강명령 이해하기 (24.8.29.)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 〈 포 럼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 〈 클 로 키 움 〉

클로키움24-01 기밀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         |                              |
|---------|------------------------------|
| 자료24-15 |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 자료24-16 |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 자료24-17 |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 자료24-18 |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 자료24-19 |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 〈 NYPI Bluenote 통계 〉

-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202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성인기 이행

인 쇄 2024년 12월 24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37-1 94330  
979-11-5654-435-7 (세트)

연구보고24-일반05-01

#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 791156 544371

ISBN 979-11-5654-437-1

ISBN 979-11-5654-435-7 (세트)